메트로 2014년 12월 8일 월요일 제3111호 www.metroseoul.co.kr

온라인보험시장 덩치 커진다

진출 생보사, 준비 포함 2년전 5곳서 11곳으로
초회보험료 작년비 2배, '대면'은 27% 증가 그쳐

생명보험사들의 경영터가 온라인 시장으로 급속히 이전하고 있다. 참여 업체가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온라인 보험시장에서의 선점 선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이는 저금리 지속으로 자금운용에 애로를 겪은 데다 을 조정보유율 사태에 따른 텔레마케팅(TM) 영업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생보사 총 온라인채널 초회보험료는 17억6700만원으로 지난해 1~3분기(4~12월)보다 106% 성장했다. 반면 이 기간 대면 채널의 초회보험료는 9조1553억6700만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7% 늘어나는데 그쳤다.

초회보험료 부분에서 온라인채널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해 지난 2012년 말보다 3배 가량 높아졌다.

현재 온라인보험을 판매하거나 준비 중인 업체는 총 11개사로 2년 전(5개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들 업체는 KDB·교보라이프플래닛·삼성·한화·알리안츠·현대라이프·하나·신한·미래에셋·IBK연금·라이나생명 등이다.

하나생명의 온라인보험 브랜드인 '하나 i Life'가 지난 2일 공식 출범했다. 온라인에 익숙한 3040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페이스북·블로그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라이프는 지난 9월 보험상품 전용 온라인쇼핑몰 '현대라이프 ZERO 단기보험 전용관'을 을 개설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생보사중 유일하게 온라인변액보험을 포함한 총 10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도 내부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온라인 채널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 시장에 진출한 업체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첫 온라인 전업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2년차를 맞는 내년부터 마케팅 강화를 선언했다. 출범 2년 만에 누적 수입보험료 100억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KDB다이렉트보험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생보업계는 온라인생보 시장 성장의 주 요인으로 저렴한 가격과 완전판매율이 높은 것을 꼽고 있다.

온라인보험의 경우 설계사 없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가입하는 만큼 계약 수수료나 점포운영비가 절감돼 동일한 보장의 오프라인 보험 대비 20~30% 정도 가격이 싸다. 다가입 채널보다 중도에 해지하는 비율이 적고 민원발생도 타 채널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의 가입 후 1년 이상인 13회차 계약유지율은 94%로 올해 상반기 업계 평균인 82.7%를 상회했다.

KDB다이렉트도 가입 후 2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한 25회차 유지율은 업계 평균보다 20%포인트 높은 88%를 기록하고 있다. 이 두 업체는 현재까지 민원발생 건수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면채널 위주의 보험시장에서 온라인보험시장의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생보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온라인채널 초회보험료의 비중은 전체의 0.02%에 불과했다. 반면 대면채널은 99%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불황으로 생보사들이 채널 다변화를 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보험시장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온라인시장 선점을 위한 각사의 경쟁이 뜨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온라인 생보시장의 경우 현재까지는 대면채널에 비해 영업비중이 미미한 상황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며 "고객을 위한 대량의 마케팅 계획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3454@metroseoul.co.kr

박 대통령 "겁나고 두려운 것 없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석상에서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와 자신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씨는 이미 오래전에 내 옆을 떠났고, 전혀 연락도 없이 끊긴 사람"이라며 "지만 부부도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갈등설을 단호한 어조로 부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저는 잃을 것도 두려운 것도 없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권은희 당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日과 올림픽종목 분산 개최 가능성은 희박"

평창조직위 "썰매종목 일본 경기 방안 전혀 검토 안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7일(한국시간)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사이에 일부 종목을 교류 개최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부인했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새벽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8~9일 열리는 IOC 총회에서 '어젠다 2020'이 최종 확정되면 2018년과 2020년 동·하계올림픽을 치르는 한국과 일본이 비용 절감의 경기장 사후 활용을 위해 일부 종목은 분산 개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양호 평창조직위 위원장은 "이번 IOC 총회에서 자기 올림픽의 분산 개최 방안 등을 다루는 '어젠다 2020'이 확정되면 올림픽조직위에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지만 경기장 재배치 등에 관해서는 IOC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로이터 등 일부 외신들은 "예산 문제와 공사 일정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창조직위가 썰매 종목의 일부 경기를 일본 나가노에서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무철 평창조직위 홍보국장은 "현재까지 평창올림픽 썰매종목을 일본 나가노에서 치르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그럴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조양호 위원장의 언급은 경기장 건립 등 올림픽 준비과정을 지속적으로 IOC와 협의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도 "평창 슬라이딩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며 "현재로서는 한국과 일본이 동·하계 올림픽 종목을 분산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병호기자 solanin@

'울보' 김정은 … 공연 보며 또 눈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또 눈물을 흘렸다. 조선중앙TV가 1일 방영한 기록영화에는 김 제1위원장이 지난달 16일 북한군 제567군부대 산하 1호 수산사업소를 방문해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김 제1위원장은 한 소조원이 김 제1위원장에 여쭉한 '물고기 대풍'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자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연합뉴스

"비선실세 논란은 지라시"

박 대통령 "나라 전체 흔들, 부끄러운 일" 비판
야 "또 가이드라인 제시"… 정윤회 등 12명 고발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로 촉발된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 "지라시(사설 정보지)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적 쇄신론까지 거론되는 현재 상황을 '국정 흔들기'로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상치 못한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소모적인 의혹 제기와 논란으로 국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당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 언론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한 후에 여러 곳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인식 때문인듯 인책론이 거론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의 거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이들을 안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 대통령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지라시 수준' 언급에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진실규명에 착수하자는 못할망정 의혹 자체를 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새누리당 지도부와 검찰에 또다시 확실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 정윤회씨와 청와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십상시' 의혹이 거론된 관련 인물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총 1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혹은 수사를 의뢰했다.

/채종승기자 cyc ...@metroseoul.co.kr

오룡호 수색지원 점검 나선 박인용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7일 오전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 501 오룡호 수색지원을 위해 이동중인 5001함에 대한 상황을 지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완화 추진

정신질환자의 병역면제 판정 기준이 최저 치료경력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7일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신과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중 5급(병역면제)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현행 '징병신체검사규칙'에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이 늘면서 지난해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3만253건이던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2010년 3만2333건, 2011년 3만367건, 2012년 3만6111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병무청의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체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된 3만922명 가운데 87%(2만6786명)가 현역으로 입대하고, 13%(4136명)만 4급 보충역이나 재검의 판정을 받았다.

/송수경기자

뉴스&뉴스

북한, 개성공단 최저 임금인상률 제한 없애

● 북한이 6일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 개 조문을 개정했다며 이 중에는 "지난 시기 종업원 월 최저노임 50달러로 하고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되었던 내용을 없애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중앙특구개발총국)이 노동생산 능률과 공업지구 경제발전 수준, 노력(노동력) 채용 실태 같은 것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문제"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웃는 해치상' 19일 기증

●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우리 전통문화 속 상상의 동물인 해치 조각상이 머지않아 공식 기증된다.

정부는 ICJ가 자리한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의 궁에 우리 작가 최진호씨의 '웃는 해치상'(해치)을 기증하는 기념식을 오는 19일 열 계획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세계재판소로서의 위상을 지닌 ICJ에 우리 예술품을 기증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모를 통해 웃는 해치 조형물을 기증 대상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여야 '2+2 연석회의' 이번주 가동하기로

● 여야가 10일부터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연석회의를 통해 예산안 처리 후로 미뤄둔 정국 현안들을 논의키로 하면서 양당 수뇌부의 치열한 수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협상 의제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나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비리' 국정조사 등 그간 양측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벌려온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연일 확산하는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들의 국정개입 의혹도 어떤 식으로든 논의 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 협상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종료 D-1… 입법 제동 걸리나

비선 실세 논란 '암초'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권 비선 실세 논란이 주요 법안들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국회는 8일과 9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최대 300여 건의 상임위 논의의 계류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막판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법안 등의 건수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 '세 모녀 3법'으로 통칭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사회보장 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 등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선실세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설인 7일 여의도 한강 주변 바위에 고드름이 맺혀 있다. /연합뉴스

반면 비선 실세 논란을 등에 업고 대여 공세의 동력을 확보한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고자 여권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주요 법안들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0여 개에 달하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 또는 부정적 반응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규제 공기업 개혁 법안 등은 정기국회 폐회 이후 예정된 여야 대표·원내대표 2+2 회담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국조·특검 요구 등과 연계해 논의될 전망이어서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됐다.

/유주영기자 ...

동화약품, 50억원대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

병·의원 923곳 연루 의사 155명도 재판

동화약품 임원과 이 회사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수십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정부합동 수사단에 의해 기소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300만~3000만원씩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55명도 기소하고 해외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은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드러난 사상 최대 규모다. 검찰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사 제품 판매를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의원 의사 등을 상대로 한 시장조사를 빙자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넸다.

관측 대상 제품은 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대중에게 광고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ETC)이었으며 금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만 전국 923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화약품 영업본부에서는 사전에 리베이트를 건넬 의사와 제품별 리베이트 금액이 적힌 명단을 대행사에 건넸고, 대행사는 영업사원들을 명단에 적힌 의사들에게 보내 형식적인 설문조사지를 제출받고 의사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동화약품에서 전문의약품의 연평균 매출액은 800억~900억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5%가 리베이트로 지급됐다. 이로 인한 부담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돌아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결과 통보가 드러난 동화약품과 병·의원에 대해 면허정지와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인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송혜윤기자 hoou @metroseoul.co.kr

"2층 버스 한번 타보자"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문화재개발원에서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2층 버스 시승행사가 열려 서울 사당까지 시범 운행할 2층 버스를 행사 참석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교수 사직 안된다"

대학들 관련 규정 강화 움직임

을 한때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수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자 대학 사회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희대는 피해 상담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자퇴나 휴학, 사직, 휴가 등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 의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학교의 총여학생회가 성폭력 대책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고, 학교 측도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가해자인 교수가 사직하면 사실상 진상 조사가 중단되고 가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징계도 불가능해진다.

그동안 교수들이 온라인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가 없었다.

최근 성추행 교수 사건으로 곤혹을 치른 고려대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주원기자

서울 고교 수업료 등 동결

2015학년도 서울 시내 공·사립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동결된다. 서울교육청은 7일 "서울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물가안정을 위해 2008년 이후 3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공·사립 고등학교의 1분기 수업료는 36만2700원, 입학금은 1만4100원이다. 방송통신고의 분기별 수업료는 6만7500원, 입학금은 5300원이다.

/송주원기자

가정어린이집 일부 교사 휴가 투쟁

오늘부터 사흘간…보육료 현실화 요구

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육료 현실화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8일부터 3일간 휴가 투쟁에 돌입한다.

전국 가정 어린이집 2만4000여개 가운데 3분의 1이 소속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 김옥심 회장은 "회원들과 협의해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8일부터 3일간 휴가를 쓰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회장은 "0~2세 보육료 지원금이 4년 내내 동결이었고 올해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을 봐도 3% 인상에 그쳤다"며 "부모들에게도 교사들이 불안전 고용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교사들이 휴가를 낼 수는 있겠지만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을 빚는 수준으로 집단 휴가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규모가 큰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똑같이 경쟁하는 일은 쉬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예산 인상을 비롯해 제대로 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주영기자 boo@

삼청각 일화당 호텔급 리모델링

노후한 삼청각 일화당이 내년 3월까지 호텔급의 고급 시설로 리모델링된다.

서울시는 7일 1972년 성북구 대사관로에 조성된 삼청각이 2001년 리모델링 이후 14년이 지나 주요 장비와 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또 삼청각이 시설 노후화와 고객 서비스 저하가 경영 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삼청각은 행정자산으로 관리 중인 문화시설로 최근에는 서울시 미래유산에 등재되기도 해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해졌다.

시는 내년에 15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삼청각 6개 동 중 하나인 일화당을 리모델링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보수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삼청각의 주요시설인 주방·한식당·카페 시설을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상업시설 인테리어도 전면적으로 개선해 고급스러운 환경을 조성하고, 호텔급의 고급 서비스 공간에 걸맞은 가구와 집기를 배치하기로 했다.

공연장 역시 안전진단을 한 결과 10년 이상 지난 시설과 객관 배선의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조명과 음향을 전부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공조·냉·난방기와 보일러도 긴급히 교체한다.

/유주영기자

서울동작우체국 '사랑의 연탄' 서울동작우체국 직원들로 구성된 '365봉사단'이 6일 서울 동작구 밤골마을에서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67가구에 연탄과 쌀을 배달했다.

음료수캔 1만개로 만든 예수

metro Russia

모자이크 작품 화제

음료수캔 1만여 개를 잘라서 만든 '예수 모자이크'가 화제다.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삭 성당에서 그리스 조각가 니코스 플로로스의 이색 모자이크 전시회가 열렸다.

플로로스는 음료수캔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예수를 표현했다. 그리스 출신의 위대한 예술가 엘 그레코의 서거 40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 플로로스는 엘 그레코의 작품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자이크로 만들었다.

플로로스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전시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캔 모자이크는 나만의 독창적인 기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작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작품을 만드는데 2년 넘게 걸렸다"며 "음료수 캔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Иисуса создали из алюминия

플로로스의 모자이크 작품은 높이 4.3m에 무게가 200kg이 넘는 대형 작품이다. 그는 "음료수 캔을 엄지 손톱 크기로 잘라 모자이크를 만들었다"며 "날카로운 캔의 표면에 손을 베여 몇 번이나 병원에 갔는지 모른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모자이크 전시회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어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세계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가 술가리바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음주·과속 운전으로 전복 사고

metro France

묘지 비석 72개 파손

최근 프랑스 북부 도시 아라스 근처에서 28세 남성이 술을 마신 뒤 과속으로 차를 몰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전자는 시속 180km로 운전했으며 음주 측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사고 당시 지나가던 31세 주민은 척추가 골절되는 피해를 입었다.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뒤 기적적으로 차량에서 빠져 나왔다.

사고 장소는 영국 군인들이 묻혀 있는 한 공동묘지였다. 이를 관리하는 단체는 그를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수하는 데 드는 재정적인 문제는 보험사에 맡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묘지의 72개 비석이 파손됐다.

/마뉴 하그캐 기자·정리=윤주희 인턴기자

美 인질 구출 또 실패

알카에다 무장대원에 발각…2명 교전 직후 살해

미군이 6일(현지시간) 인질 구출에 실패, 또다시 자존심을 구겼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해군특전단(네이비실)은 예멘의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와 연계된 단체에 잡힌 미국인 인질을 구출하는 작전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네이비실은 AQAP에 납치된 인질 2명을 구출하려고 시도하다가 도중에 발각됐다. 양측의 교전이 시작됐고 알카에다 무장대원은 곧바로 인질들을 살해했다.

미국은 주요 인질 구출 작전에서 여러 차례 실패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납치된 미국 언론인 제임스 폴리와 스티븐 소트로프를 구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방부는 구출 작전을 비밀리에 시도했지만 IS가 거처를 재빨리 옮긴 뒷에 억류 장소를 정확히 알아내지 못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번 구출작전 실패 소식을 전하며 지난 30여년간 미국 정부가 실패했던 인질 구출작전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군은 2011년 오만 부근 해역에서 납치된 미국인 4명을 구출하는 작전에 미사일장착 구축함까지 동원했지만 인질을 구하지 못했다.

2010년 10월에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납치된 영국인 자선단체 여성 활동가 린다 노그로브 등 3명의 구출 작전을 개시했다. 당시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의 승인하에 미군 특수부대가 이들이 감금된 탈레반 은신처로 들어갔지만 작전 도중 인질이 모두 숨졌다.

1980년 4월 24일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독수리의 발톱 작전을 승인했다. 1979년 11월 이란 이슬람혁명 뒤 주테헤란 미대사관에 억류된 인질 52명을 구출하는 작전이었다. 이 작전은 집합지인 이란 야즈드주에 인질 수송용 헬리콥터가 모래폭풍과 기기 고장 등으로 도착하지 못하면서 중단됐다.

/조선미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멕시코 실종학생 43명 피살로 결론? 실종된 멕시코 교육대 학생 43명의 가족과 친척이 학생들의 사진을 들고 6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도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육대 학생들은 약 두 달 전 게레로주 이괄라시에서 시골 교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가 실종됐다. 학생들은 피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과 전문 조사 기관은 밝혔다. 실종된 학생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에서 최근 실종 학생 한 명의 유전자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AP 연합뉴스

'식품업계 우버' 인기 폭발

배송 서비스 인스타카트…주문 2시간 내 도착

원하는 음식재료를 PC나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가장 신선한 것을 골라 1~2시간 내에 배송해준다.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같은 장점을 지닌 식품 배송 서비스 '인스타카트'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식료품 당일 배송으로 미국 15개 도시에 진출한 인스타카트가 클라이너퍼킨스와 세쿼이아캐피탈 등 벤처 캐피털사와의 협상을 통해 조만간 2억 달러(약 223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2012년 설립된 인스타카트는 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타카트 직원이 대신 장을 보고 1~2시간 내에 배달해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식료품 업계의 '우버'로 불리고 있다. 서비스 가격은 35달러(약 3만9000원) 이상을 주문하면 4~6달러 수준이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주문할 수 있어 바쁜 전문직과 젊은 부부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WSJ은 "구매과 배달 인력만으로 구성돼있어 기존 식품 업체와 달리 재고나 식료품 저장 비용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며 "인스타카트는 지난 6월 4400만 달러(약 490억6000만원)를 투자받아 기업가치가 4억 달러(약 4460억원)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국명 기자 kmlee@

오바마 병원 치료
위산 역류 인후염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인후염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요 외신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주치의 로니 잭슨 박사는 "위산 역류에 따른 인후염 증세"라며 "후속 치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주 동안 인후염 통증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검사를 받은 것은 통증이 심해서가 아니라 일정상 편의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선미 기자

"완벽한 보안시스템은 없다"

정경호 KISA 부원장 인터뷰

IT Cafe

"새로운 인식 전환 필요…예방체계 강화 위해 노력"

제11회 해킹방어대회

정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부원장은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란 없다"며 "꾸준한 투자와 전문인력 투입을 통한 내부망 더 완벽에 가까운 보안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손진영 기자 son@

"완벽한 보안 시스템은 없다. 지속적인 투자-시스템 보완이 이뤄져야 완벽에 가까운 보안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정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부원장은 "새로운 공격방식이나 악성코드가 꾸준히 생성되는 현 시대에 완벽한 보안 체계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부원장은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침해사고 등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것은 문제지만 이에 대한 경험이 결국 국내 보안 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보안에 대한 인식 바뀌어야

"국내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 담당자가 너무 힘들다. 사실 보안사고란 교통사고처럼 매일 있을 수밖에 없다. 관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정 부원장은 보안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보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취약점 발견 시 해당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사소한 보안문제가 마치 전체의 문제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사고로 인해 큰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이 어떤 보안 전문 담당자와 시스템을 갖춘 것은 어떤 보안 관련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내 기업은 마치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기업은 보안 사고 발생 시 보안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이다. 그야말로 사람의 책임으로 보고 일벌백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 부원장은 이를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고도 뒤늦게 병에 걸리는 경우'에 비유했다.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모든 병을 막아낼 수 없는 것처럼, 운이 나빠 건강검진 이후에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보안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같은 국내 보안에 대한 인식 때문에 화이트해커(보안 전문가)도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일부 화이트해커는 국내에서 다양한 기업의 홈페이지, 서버 등을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해당 기업의 보안 담당자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은 이를 '우리 기업을 해킹하다니 고소하겠다', '네가 뭔데 이래라저래라냐' 등의 반응으로 불쾌해 하며 강경한 반응을 보인다.

이는 글로벌 기업과 대비된다. 해외 기업은 보안 체계에 대해 열린 사고를 갖고 있다. 일부 해외 기업은 자사 홈페이지나 서버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이들에게 포상제를 마련,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KISA에서 2012년 10월부터 소프트웨어·웹 솔루션에 대한 인터넷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해킹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신고하면 분기별 등급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 부원장은 "국내 기업이나 사회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길 기대한다. 지금으로써는 KISA의 소프트웨어·웹 솔루션 신고포상제도 등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결국 집단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안에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통합보안 시장을 잡아라'

"그동안 국내 보안산업은 단품 상품 위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접어들면서 통합보안에 대한 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정 부원장은 한국의 보안 시장 규모를 1로 볼 때 일본은 10, 미국은 100이라며, 국내 보안 시장도 글로벌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IoT 시장 확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등장하며 보안 시장도 이 같은 형태에 맞춰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보안 시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형태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어떤 사고가 발생해야 뒤늦게 해당 공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점 보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IoT 시대에는 대처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PC를 기반으로 한 과거에는 업데이트나 손쉽게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는 형태로 보완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가전, 웨어러블 기기 등 맞춤형 보안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 부원장은 "최근 PC보다 스마트기기에 대한 이용이 늘고 있는데 국내 보안 시장은 여전히 제각각 디바이스 형태에 따른 대응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젠 여러 보안 기업이 협력을 통해 토탈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 주체가 없으면 IoT 시대에 지속적인 보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영 기자 ly4403@metroseoul.co.kr

"사이버 공격시 신속 대응"

정 부원장 취임 후 소회

정 부원장이 지난 7월 KISA 부원장에 취임한 후 약 4개월여가 지났다. 그동안 원장 직제로만 운영되던 KISA는 개인정보보호와 인터넷 침해사고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기관장을 보좌하고, 정보보호 전담 부원장제를 도입했다.

그렇다면 정 부원장의 4개월여 간의 소회는 어떨까.

그는 "개인정보와 침해대응 양쪽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터넷 침해 사고 발생 시 예방과 대응, 분석이라는 부분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인터넷 보안에 대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비하기엔 어려운 시대가 왔다"며 "각종 사고를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사전적 예측을 통해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는 한편, 사이버 공격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부원장은 내년 목표에 대해 "보안 관련 큰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대응체계가 빛을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홀수년도에 대형 보안 사고가 발생한 만큼 2015년에 이 같은 대형 보안 사고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아울러 "창조경제 성장엔진으로 인터넷이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KISA가 창조경제를 뿌리 내리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정 부원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거쳐 KISA(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입사해 정책연구실장, 정보보호본부장, 인터넷침해대응본부장 등 정보보호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다. /이재영 기자

안보공단 포스터 '커뮤니케이션 대상'

떨어짐 재해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홍보 포스터'가 지난 3일 제24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홍보물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의 산재예방 홍보 포스터는 넘어짐, 떨어짐, 화학물질 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유형 15종에 대한 안전정보를 통해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포스터는 사업장에 부착하여 누구나 위험요소와 안전작업 방법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영어를 병기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상은 한국사보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홍보물, 사보, 광고, 캠페인 등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24개 부문에서 우수작품을 선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대형재난과 재해가 많았던 올해는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로 공단의 산재예방 홍보 포스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며 "특히 필수 안전수칙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 디자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배려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market index <5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88.02	550.85	2.17	1115.00
(+0.01)	(+2.43)	(+0.01)	(변동없음)

뉴스&뉴스

올레 기가와 함께면 UHD TV를 파격 할인 KT는 올레 기가 인터넷과 올레 TV를 동시에 신규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UHD TV, 최신PC 등을 파격 할인가에 제공하는 기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KT제공

휴면카드 꼼수 업체 적발

● 휴면신용카드 해지를 막으려 자동해지제도를 안내하지 않는 등 꼼수를 쓴 카드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신용카드에 대한 자동해지제도 이행실태를 카드사에 자체점검토록 했다.

이 결과 8개 신용카드사에서 적발사례가 발견돼 즉시 시정토록 했다. 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카드사에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추후 검사때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illegible]기자

해외여행 기록 경신

● 지난해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이 늘어나면서 1인당 평균 해외 지출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출국한 국내 관광객은 1336만1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했다.

이는 지난 한해 해외관광객인 1484만6485명의 90%에 달하는 것이다. /[illegible]기자

로또복권 제629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2	9	22	25	31	45	12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액
1등	6개 숫자 일치	1,332,230,150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54,381,336
3등	5개 숫자 일치	1,401,086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 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대표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4 3
독자센터 02)721-9851
2005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06

건설분야 M&A 속도 낸다

LIG·쌍용건설, 연내 매각 마무리 예상

최근 몇 년간 지지부진하던 건설사 인수 합병(M&A)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수주 확대, 분양시장 호조 등에 힘입어 건설경기가 바닥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건설사를 인수하려는 기업이 늘어난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본입찰이 시작된다. 현재 중동 두바이 국부펀드, 싱가포르 사모펀드, 삼라마이다스(SM)그룹, 스탬포드리소시즈 등 4곳이 인수적격후보로 선정돼 실사를 진행 중이다. 중동 두바이 국부펀드와 SM그룹이 인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실사가 끝나는 대로 본입찰을 시작해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 정밀실사와 최종 가격협상을 거쳐 본계약을 신시할 계획이다.

쌍용건설은 지난 2007년 이후 7차례나 매각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 대부분을 상환하며 1조원에 달했던 예상 매각가를 3000억원 내외로 낮춘 데다, 법정관리 이후에도 해외사업을 수주할 만큼 시공력도 인정받고 있어 이번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앞서 지난 10월 LIG건설도 한송디엔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최종 협상을 진행 중으로 돌발변수만 생기지 않는다면 연내 매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같은 달 30일 파라곤 브랜드로 유명한 동양건설산업 역시 5번째 시도 끝에 이지건설과 160억원에 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최근 건설사들이 잇달아 매각에 성공하는 데는 건설경기가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이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3분기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 누계는 463억 달러로 최근 5년간 동기 평균 수주액(406억 달러)보다 19.3% 늘었다. 또 12월 들어 주춤하긴 하지만 주택거래량이 늘고 분양시장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내외에서 주택 건설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것이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가 돈 잡아먹는 하마라고 불릴 때만 해도 공짜로 준대도 기업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며 "그러다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으로 시장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지자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워낙 오랜 기간 불황을 겪은 만큼, 지금의 분위기가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광토건만 해도 상반기에 이어 지난 9월 또 다시 M&A를 추진했지만 나서는 업체가 없어 불발로 끝났다.

업계 관계자는 "쌍용건설은 시공력으로 유명한 곳이고, 동양건설산업은 인수금액이 160억원으로 비교적 저렴했다"며 "아직 건설경기 회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술이나 금액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일부 매물을 제외하고는 매각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분양(주택)만 잘 되고 있을 뿐 그 외 토목, 건축 등의 실적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건설사를 인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기업들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ICT융합기술인 송년의 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ICT융합기술인 2014 송년의 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IT융합기술협회 제공

팬택 2차 M&A 추진

1차 매각 유찰로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스마트폰 제조업체 팬택이 2차 M&A(인수합병)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원과 채권단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팬택 채권단과 법원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인수합병 등 긍정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이 기업계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다른 방안을 찾기로 한 것이다.

삼정회계법인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팬택의 청산가치는 1505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 1114억원보다 391억원 더 높다. 팬택을 회생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현재로선 이득이라는 것이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이준우(사진) 팬택 사장은 "청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것은 운전자금 부족으로 자재를 제대로 확보지 못해 정상적인 영업활동 등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합병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면 조속한 시일 내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고 채권회수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팬택에 관심이 있었던 국내외 기업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투자 조건, 구조 등에 대해 보다 신속적인 형태로 2차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팬택은 지난달 21일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유찰된 후부터 계속해서 2차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매각 일정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혁연기자 hjjung0404@

SK 대전센터, 투자·고용 '쌍끌이'

300억 펀드 조성… 창조경제 모범사례 정착

SK그룹의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전센터)에서 육성 중인 벤처기업들이 국내외로부터 거액을 투자 받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7일 SK그룹에 따르면 대전센터가 확대 출범한 지 2개월여 만에 입주 벤처기업 10개 가운데 5기업이 국내외에서 13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엑센은 10억원을 투자받아 입주 업체 가운데 최고액을 기록했다. 엑센은 지난 5일 벤처창업기획사인 액트너랩으로부터 1억원을 투자받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또 정부와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9억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SK그룹은 대전센터에 입주한 10개 벤처기업에 2000만원씩 조기 창업지원금을 전달했다. SK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펀드도 투자자로 참여했다. 조만간 2억원의 추가 펀딩이 예정된 벤처기업이 생겨나는 등 크고 작은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벤처 1세대 대표주자인 대덕벤처파트너스의 강종진 대표와 KITE창업가재단의 김현환 대표 등 대전센터의 멘토들도 벤처기업 2곳에 조기 투자금 2억원을 지원했다. 강 대표 등은 지난 9월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벤처 투자 전문가들이다. 강 대표 등은 투자자를 추가로 유치해 투자금 규모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해외 투자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엠투브는 미국계 벤처캐피탈인 DEV에게서 2만 달러를 유치했다. 지난 10월 대전센터 입주 벤처기업 대표를 만나 투자 가능성을 검토했던 미국의 유명 벤처창업기획사 팀 나인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특히 대전센터 입주 벤처기업에 신규 인력이 몰려드는 긍정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해외 박사와 대기업 출신의 전문인력이 입사를 해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김태균기자 [illegible]

엑센 김준우 대표(사진 왼쪽)와 벤처창업기획사 액트너랩 조원제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액트너랩 사무실에서 투자협약식을 갖고 있다. /SK 제공

이광구 내정자 "조직 안정에 최선 다할 것"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민영화·서금회 논란 등 과제로

차기 우리은행장에 이광구 부행장(57·사진)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우리은행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민영화 방식부터 인사·경영 방침까지 '이광구 호(號)'만의 새로운 리더십이 우리은행을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는 지난 5일 이 부행장과 김승규 부행장, 김양진 전 수석부행장 등 3명을 심층 면접한 후 이 부행장을 차기 행장으로 내정했다.

행추위는 "이광구 후보가 은행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은행의 기업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최대 현안인 민영화와 우리은행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안고와 서강대를 졸업한 이 내정자는 1979년 우리은행 전신인 상업은행에 입행하며 금융권에 첫 발을 들였다.

그는 홍콩지점장과 개인영업전략부 부장, 영업본부장, 경영기획본부 부행장 등을 거쳐 현재 우리은행 개인고객본부 부행장으로 재임 중이다.

이 내정자는 은행 전반에 업무 경험이 많으며 높은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열정이 강한 인물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4차례나 실패로 돌아간 민영화와 서금회(서강대 금융인 모임) 논란 등 그가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하다.

특히 정치금융과 내정설 논란 등을 업고 자기 행장에 오른 만큼 조직 내부갈등을 봉합하고 경영능력을 통해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 내정자 역시 이같은 문제를 의식해 최종 행장 후보 결정 직후 노조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취임 후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은 형평성 있는 인사를 펼치겠다"며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 내정자는 또 행장 선임 과정에서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등의 논란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박원춘 노조위원장의 지적에 "조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동건 수석부행장의 임기가 오는 30일인데다 박태용 부행장과 이용권 부행장 등의 임기도 8일로 임박해 있어 인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민영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은행 매각의 경우 지난달 28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 56.97% 가운데 경영권(지분 30%) 지분 입찰은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무산됐다. 소수지분(26.97%) 또한 매각예정 물량의 3분의 1가량만 팔리며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 민영화가 이 내정자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한편 우리은행은 9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 내정자를 행장 후보로 확정하고 30일 주주총회에서 차기 행장으로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한국·홍콩·유럽지수 연계 ELS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9일까지 트루(TRUE) ELS 5302회 등 총 10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이 상품은 코스피200,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탁스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3년 만기 조기상환형이다.

6개월 마다 돌아오는 평가일에 기초자산 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의 90%(6개월, 12개월, 18개월), 85%(24개월, 30개월, 만기) 이상이면 연 7.4%로 수익상환된다.

만기까지 상환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세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의 55%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았다면 22.2%(연 7.4%)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코스피200·HSCEI 기초자산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ELB) 2종, 코스피200·HSCEI·S&P500·유로스타스50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10종을 포함 총 13종을 모집한다. 최소 가입한도는 100만원이다.

/김현정기자 hjkim1@

9월말 은행지주 BIS 13.9%

국내은행지주회사의 9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모든 지주사들이 재량평가 1등급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말 은행지주회사의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총자본비율은 13.9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의 13.86%보다 소폭 높아진 수치다.

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1.51%, 보통주자본비율은 10.75%로 집계됐다.

이익잉여금(1조8000억원)과 유상증자(7000억원), 자본증권 발행(6000억원) 등으로 총자본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반면 위험가중자산은 은행들의 원화대출금 증가로 15조원 늘어났다.

은행지주회사별로는 SC지주(16.28%)의 총자본비율이 가장 높았고 하나지주(12.48%)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농협지주는 원화대출금이 4조4000억원 늘어나는 등 위험가중자산이 커지며 총자본비율(13.92%)이 가장 많이(0.54%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반해 JB지주는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면서 총자본비율(14.35%)이 가장 많이 상승(2.63%포인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지주사의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고 자본 적정성이 향상되면서 자본비율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앞으로 바젤Ⅲ 기준 이행계획이 예정돼 있는만큼 추가 자본 부과 계획 등에 대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계획을 수립, 안정적인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한국은행 '효 실천의 날' 봉사 한국은행은 지난 6일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한국은행과 함께하는 효 실천의 날' 급식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장병화 한은 부총재(사진 가운데 오른쪽)와 집행간부, 부서장 등이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배식했다.

/한국은행 제공

엔저 후폭풍에 금리 인하카드 꺼낼까?

한은, 내년 1분기 0.25%p 인하 가능성

오는 11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이 또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한은은 보통 연말과 연초에는 기준금리를 변동하지 않았다. 과거 한은이 12월에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차례였다. 그러나 엔저 등 대내외 변수로 한은이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이냐, 인하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재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2월 기준금리 인하 환경이 구비된 것으로 보이는만큼 금통위가 12월에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계대출 급증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요인이지만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형중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실물경기 부진, 물가 하락, 엔저 대응 등 금리 인하의 명분은 이미 충분해 보인다"면서 "통화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기준금리 인하는 시기의 선택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소비와 투자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데다 엔저라는 대외 변수도 한국 경제에 악재다. 이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 저물가와 경기침체, 엔저 등 외부 악재를 방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채권시장에서도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고 국고 3년물 금리도 기준금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한은이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HMC투자증권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1분기 중 한은이 경제전망 하향조정과 함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모건스탠리도 "내년 1분기 중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은이 금리를 역사적 저점인 1.75%로 낮춘 뒤 2년 가량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지기자 minji@

韓 증시 中과 괴리 커질듯

외국인 후강퉁 이어 내년 심항퉁 도입 등 개방 관심

한국 증시의 글로벌 소외현상이 더 심해졌다. '저평가국'으로 꼽히던 중국 증시마저 본격적인 자본시장 개방으로 감세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내년에는 한국과 중국 증시의 괴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말 대비 2.1% 하락했다.

주요국 증시 중에 주가가 지난해 말보다 낮아진 곳은 한국과 러시아 뿐이다.

러시아 RTS지수는 올 들어 34.3%나 빠지며 약세를 면치 못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각국의 통화 완화 정책과 경기부양 기조에 힘입어 주식시장 호조를 보였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지난해 30% 급등하고서 올 들어서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12.2% 추가 상승했다.

중국 심천종합지수가 37.4%로 뒤를 이었고 인도 선섹스지수(34.3%), 중국 상해종합지수(31.4%), 인도네시아 JC지수(20.9%), 베트남 VN지수(13.9%) 등 순이었다.

증시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나홀로' 약세 흐름을 나타내는 배경에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연초 예상보다 더 휘청거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재만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교역량이 늘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다"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게 싸지 않아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외국인의 관심을 크게 끌 만한 재료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과 대조적으로 중국의 주식시장은 최근 급격하게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다.

중국 상해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지난 3일 사상 처음으로 5000억 위안(약 90조5000억원)을 넘어섰고 본토증시의 신설 주식계좌 수도 주간 기준으로 최근 43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그만큼 중국 주식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쏠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년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주식시장 개방정책을 발표하고 중국 증시가 MSCI 신흥국시장지수에 들어가면 외국인을 중심으로 중국을 향한 관심은 더 증폭될 전망이다.

올해 후강퉁(본토와 홍콩거래소간 교차매매)에 이어 내년 심항퉁(심천과 홍콩거래소간 교차매매) 제도가 도입되고 민영은행 설립,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등의 개방정책이 시행된다면 긍정적인 계보가 될 수 있다.

내년에는 한국과 중국 증시의 괴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한국과 중국은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았으나 4분기 들어 두 증시간 행보가 달라졌다"며 "중국은 후강퉁 등 정부 정책으로 투자 유인을 만들면서 저평가 매력을 어필했으나 국내는 이미 자본시장을 개방한 상태이므로 이런 수급 효과를 노리려면 기업 실적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metroseoul.co.kr

LIG손보 '희망나눔 김치 담그기'

LIG손해보험은 5일 서울 역삼동 소재 강남문화원에서 '2014 LIG희망나눔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병헌(오른쪽) 사장 내외가 김장을 담그고 있다. /LIG손해보험 제공

LIG손해보험은 5일 서울 역삼동 소재 강남문화원에서 '2014 LIG희망나눔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헌 사장을 비롯한 본사 임직원 30여명이 부부동반으로 참여했다. 김장에 사용될 배추와 무, 양념 등 재료는 도농결연을 맺고 있는 충북 증평군 죽리마을에서 재배한 농작물로 준비됐다.

회사는 이날 담근 1500포기를 200개 사회공헌 결연 기관과 서울 강남구 중증장애인 100여 가구에 전달했다.

김병헌 LIG손보 사장은 "오늘이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지만 김치를 담그는 동안 오히려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김장김치가 올 겨울 우리 사회에 온정을 더하는 데 작으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내년 수출의 전망은? 외환은행이 국내 우수거래 수출입 기업 임직원 300여명을 초청해 '2015년 국내외 경제 환율 전망과 중국 위안화 금융환경 수출입 세미나'를 열었다. 이동근 외환은행 외환금융전략 팀장이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외환은행 제공

통합 산은 조직개편 "정책금융 강화"

내년 1월 출범할 통합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총괄 상임이사직 신설 등 정책금융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 합병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통합 산은은 11개 부문, 7본부, 55부실, 82개 지점으로 구성된다. 이는 산은금융지주와 산은, 정금공 등 3개 기관의 조직 총수보다 4개 부문, 2개 지역본부, 18부실, 2개 지점이 축소된 규모다.

중복 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해 조직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정금공의 대기업, SOC 등 직접대출과 기획, 인사 등 후선업무는 산은과 합쳐진다.

반면 창조금융과 기술, 통일금융 관련조직은 확대 개편된다. 예컨대 정금공의 통일사업부는 산은 조사부와 통합해 미래통일사업본부로 확대된다.

성장사다리펀드 등 간접투자 기능도 강화된다. 특히 온렌딩(민간은행 간접대출) 업무와 간접투자 업무를 확대개편하고 중기 기능에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 금융안전기금 등 시장안전판 기능은 유지, 보완된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을 총괄하는 상임이사직을 신설해 산은 정책기획부문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상임이사는 정책기획부문, 창조기술금융부문, 간접금융부문, 미래통일사업본부를 총괄하게 된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중복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 개편하고 정금공과 산은지주의 주요기능을 발전적으로 승계해 새로운 정책금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 /하예진기자 ve@metroseoul.co.kr

겨울 옷 '니트' 잘 관리하려면?

전순이 주부 경제역

니트의 계절이 돌아왔다. 추운겨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내려면 포근한 니트 아이템의 힘을 빌려야 한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소재의 특성상 보풀이 잘 일어나고 조그만 자극에도 올이 풀려 세탁하기가 까다롭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세탁과 보관에 조금만 신경 쓰면 내년에도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다.

우선 니트는 가볍게 먼지를 털어준 뒤 보관해야 한다. 니트를 보관시 옷걸이에 걸어두면 처지거나 옷걸이 자국이 남게 된다. 되도록 면적이 큰 옷걸이에 걸어둬야 옷걸이 자국이 남지 않는다. 통풍이 잘 되는 바구니 안에 둥글고 느슨하게 말거나 접어서 보관하는 것도 좋다.

또 니트에 보풀이 생기면 바로 제거하는 게 좋다. 보풀은 통기성을 방해해 위생적인 면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보풀이 생기면 보풀제거기를 이용하거나 칫솔, 가위, 일회용 면도기를 이용해 제거해야 한다.

니트는 가볍게 자주 세탁하는 것이 좋다. 뜨거운 물에 세탁하면 니트가 줄어들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에 울전용 중성세제를 풀어 5~10분 정도 단독으로 세탁해야 한다. 손으로 가볍게 눌러 빠는 것이 원칙. 수건처럼 물기를 털거나 짜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수건으로 두드려 물기를 빼줘야 한다. 더욱이 보풀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특수다. 단추가 있는 니트나 가디건은 단추를 채워서 세탁해야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니트를 건조할 때도 유의할 점이 있다. 니트는 쉽게 늘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적인 옷걸이 대신 빨래 건조대나 평평한 곳에 모양을 잡아서 뉘어 말려야 한다. 되도록 서늘한 곳에서 오래 말리는 것이 좋다.

/정리 지가희 mri 몰

가정용 '홈프로젝터' 판촉전 본격화

공간제약 적고 값도 100만원대… 영화 스포츠 즐겨

프로젝터 업체들이 가정용 '홈프로젝터'를 내놓으며 B2C 시장공략에 나섰다. 가정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스포츠·교육 등의 콘텐츠를 고해상도로 즐기려는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TV와 음향시스템으로 홈시어터를 구축하는 것보다 공간제약이 적고 값이 저렴하다. 특히 기존 홈프로젝터가 200만~300만원을 넘는 고가여서 수요층이 제한됐던 것과 달리 최근 100만원대로 가격이 낮아져 접근성이 높아졌다.

엡손은 이전 모델보다 밝기, 명암비 등 주요한 성능을 모두 개선한 홈 프로젝터 신제품 'EH-TW6600W'을 지난 5일 출시했다. 엡손의 제품은 세 장의 액정표시장치로 선명한 색 재현력과 밝은 화면을 구현하는 3LCD 방식 프로젝터다. 밝기는 2500루멘(lm)으로 낮에도 집에서 암막 커튼을 치지 않고도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제품의 명암비는 7만 대 1이며 자동 조리개 기능을 통해 각 장면에 맞는 최적의 명암을 지원한다. 풀HD 해상도를 지원하며 이보다 떨어지는 품질의 영상도 슈퍼 해상도 기능으로 이미지의 해상도를 향상시켜 풀HD 품질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제품 앞쪽에 위치한 렌즈 시프트 버튼은 렌즈를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버튼을 돌려서 화면을 상하좌우로 옮겨 스크린에 맞추기에 편리하다.

에이서는 지난달 홈시어터에 특화된 프로젝터 'H6520BD'를 출시했다. 이 회사는 빠른 반응속도로 선명한 초점과 동영상 표현, 저렴한 유지보수비용이 장점인 DLP 투사방식의 프로젝터를 생산한다. 이번 신제품은 풀HD 해상도와 블루레이 3D 기술을 지원하는 프로젝터로 밝기는 3500루멘, 명암비는 1만 대 1이다. 16:9 와이드스크린 비율과 함께 최소 28인치 스크린에서 최대 300인치 스크린까지 지원한다. 특히 H6520BD는 HDMI, RGB, 컴포지트 입력단자 외에도 MHL 기능을 지원해 스마트폰과 직접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에이서의 H6520BD, 옵토마의 HT26, 엡손의 EH-TW6600W /에이서, 옵토마, 한국엡손 제공

DLP프로젝터 전문 제조업체인 옵토마는 지난달 100만~200만원 대의 다양한 가격의 고광도 풀 HD 3D 홈시어터 프로젝터 3종을 선보였다. 신제품 'HD36', 'HT26', 'HT26V'는 3만 대 1의 고명암비에 각각 3000루멘, 3100루멘, 3300루멘 밝기를 지원한다. HD36은 4개 감마 모드, 7색 독립 조절 기능, 30W 스테레오 스피커 탑재로 전문가 수준의 섬세한 색상과 생생한 사운드를 구현해 고화질의 블루레이 콘텐츠를 즐기기에 좋다. HT26과 HT26V는 MHL 케이블을 지원해 스마트폰의 영상과 이미지를 프로젝터와 연결해 풀 HD 급으로 감상할 수 있다.

/윤휘종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LG전자, 무선 핸디스틱 청소기 1만대 돌파 LG전자의 무선 핸디스틱 청소기가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했다. /LG전자 제공

노키아, 서울에 R&D센터

모바일 브로드밴드 기업인 노키아가 내년 3월 서울에 연구개발 센터를 건립한다.

노키아코리아는 5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망 기술과 5G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앤드류 코프(사진) 노키아 코리아 신임 대표는 "3개월 내 한국에 노키아의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며 "연구개발(R&D) 초기 단계에 있는 신기술을 먼저 한국 시장에서 시범에 선보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지 선정을 비롯해 인력 확충 등 세부사항이 완료 단계에 있어 계약만 최종 체결되면 공개할 계획"이라며 "인게 현황 및 연구개발 센터의 발전 상황을 보고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노키아는 미국·영국·호주의 재난망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 테크놀로지 센터를 건립한다. 해당 연구개발 센터는 초기 단계의 통신 신기술을 개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코프 대표는 "한국 시장은 중요하다. 판교 등에 위치한 한국의 중소기업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3세대 사물인터넷(IoT)을 넘어 사람과 사물이 모두 연결되는 4세대 프로그래머블 월드(Programmable World)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키아에서 15년간 근무하며 지난 2006년부터 북아시아 지역 영업 기획 총괄로 일해온 코프 신임 대표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의 노키아 전략 활동을 담당해왔다. 특히 올리 LTE망 출시 일환으로 진행됐던 노키아의 첫 15+10Mhz 3G/LTE 무선주파수 공유 사업을 관리 감독했으며 이번에 노키아 코리아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

/정성훈기자 ysw@

'올해의 삼성맨' 반도체·TV가 석권

모바일 부문 수상자 無

올해 삼성그룹을 빛낸 임직원들은 삼성전자의 TV와 반도체 부문에서 쏟아졌다.

최근 몇 년간 득세했던 모바일 부문의 경우 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삼성은 지난 5일 올해 뛰어난 성과를 올린 임직원 15명을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미국 TV 시장에서 역대 최고 시장점유율을 올리는 데 공헌한 데이브 다스 상무, 유럽 물류조직을 통합해 비용을 줄인 에드윈 팔메나 상무, 인도 로컬마케팅으로 TV 매출을 신장시킨 박태호 상무 등 3명이 공적상을 받았다.

세계 최초로 20나노 D램을 개발한 남석우 전무(왼쪽 사진)와 UHD(초고해상도) 커브드 TV 기술을 선도한 김광연(오른쪽) 상무는 기술상을 받았다. 커브드 TV를 디자인한 손재주 수석은 디자인상을 안았다.

남석우 전무가 이끄는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는 개발이 어렵다고 여겨진 20나노 D램을 내놓아 세상을 놀라게 했고 메모리 사업부는 지난 3분기 3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올리며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했다.

평면 화면에서 휘어진 화면으로 제품 자체를 바꾼 UHD 커브드 TV는 글로벌 TV 시장을 재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삼성전자가 세계 TV 시장에서 9년 연속 1위를 지킨 원동력이기도 하다.

반면 무선사업부에서는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스마트폰 우측면에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갤럭시노트 엣지'와 가상현실 기기인 '기어VR' 등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였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날 오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등 삼성 사장단과 임직원, 수상자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 임직원 수상자는 1직급 특별승격과 함께 1억원의 상금을 받는다.

/석상훈기자 ssh@

이상철 부회장 "단통법 보완 필요하다"

LGU+ 송년 기자간담회…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시장에 곧 자리를 잡은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보완은 필요하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는 보조금 대란이 지나고 영업정지에 단통법 시행 등이 이어지면서 참 힘든 한 해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단통법 시행 이후 2~3달째에 접어들면서 법이 시장의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는 주장이다. 이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도 단통법에 대해 알고 시장도 여기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내년도 통신시장에 대해 그는 "여러 변수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 올해처럼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단통법이 이대로 자리잡기에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단통법에 기기변경과 신규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똑같이 주도록 돼 있는데 고객들이 신규 등록하거나 타사에서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드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는 발품을 팔면서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어딜가도 단말기 가격이 동일해 지면서 중간 대리점의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책적인 방안을 통해 지원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불거진 '요금인가제 폐지' 여론에 대해서는 "마치 요금인가제가 요금 내리는 것을 연기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단순히 요금을 올리는 것을 정부가 연기하는 것이지 내리는 것은 지금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오해가 불거지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이다.

그는 "요금인가제 폐지는 곧 5대3대2의 시장을 '고착화' 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과연 공정경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5일 LG유플러스 상암사옥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5G를 향한 혁신과 조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이 부회장은 최근 방송업계와 통신업계 간 쟁점화 돼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LTE 시대로 접어들면서 비디오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과거에는 주문형비디오(VOD)로 비디오를 시청했는데 이제는 스트리밍으로 보다보니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해졌다"고 언급했다.

특히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데이터를 평균 18GB를 사용하고 많이 쓰는 이용자는 60GB까지 사용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맞는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주파수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며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5G를 향한 혁신과 진화'를 주제로 강연에도 나섰다. 그는 "앞으로의 5년이 향후 50년을 가늠할 것"이라며 "5G 시대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은 기존의 통류 개념을 뛰어넘어 인프라와 콘텐츠, 서비스에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명품 패딩, 저렴하게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롯데 빅마켓에서 캐나다 3대 프리미엄 패딩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LG전자 '롤리팝' 업그레이드

내년 초 추가 진행 예정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구글 최신 안드로이드 OS인 '롤리팝'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용된 제품은 삼성전자 갤럭시S5 와 LG전자 G3 로 각각 지난 4월, 5월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제품이다. 해당 단말기 이외에 다른 제품은 2015년 초 롤리팝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4, 갤럭시S5 광대역 LTE-A, 갤럭시 노트3, 갤럭시S4 등 주요 스마트폰에도 2015년 초 일정으로 롤리팝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대상 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갤럭시 노트 엣지, 갤럭시 알파 등 새롭게 선보인 스마트폰은 물론 갤럭시탭 S 등 태블릿에도 최적의 롤리팝 환경이 적용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사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OS의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을 거쳤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새롭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도 내년 상반기 'G2'를 시작으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출시된 G2는 구글이 지난해 발표한 '넥서스5'가 G2를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하드웨어 사양으로 인한 안드로이드 5.0 업데이트 중단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롤리팝은 구글의 역대 안드로이드 중 가장 크게 변화한 OS다. '머티리얼 디자인'을 채용해 애플의 iOS에 버금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구현했다. 엔진 구동에 있어서도 기존 가상머신 '달빅'을 버리고 안드로이드 런타임(ART)을 선택해 64비트를 지원하고 배터리 효율성 등을 높였다.

/양성운기자 ysw@

확 달라지는 송년회…

경품 추첨·시상 등 다양한 이벤트 눈길

A증권사 정모(33) 대리는 송년회가 달갑지 않다. 그는 "올해 업황이 안 좋아 송년회가 썰렁할 것 같다. 구조조정도 많았고 성과급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루에 몰아서 파이팅 외치는 형식적 송년회보다 평소에 직원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홍보대행사 김모(27) 사원은 송년회 준비로 들떴다. 김씨는 "송년회는 회사 사람들끼리 친해 동안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소통의 장이다. 송년회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경품 추첨이나 연말 시상식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드라마 '미생'이 직장인 심금을 울린 가운데 올해 마지막 술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영욕의 한해를 마무리하는 직장인 모습을 살펴봤다.

직장 회식의 완결판은 역시 송년회다. 종로와 강남 등 주요 오피스 타운 고깃집은 송년회로 예약이 꽉 찬 지 오래다.

C은행 홍대지점 이모(28) 행원은 요즘 송년회 계획을 짜느라 분주하다. 이씨는 "수용 인원과 분위기, 가격까지 맞춰야 하는데 취향 변수가 많아 연근 식당 예약이 어렵다"며 "지난해 송년회는 뮤지컬 단체 관람으로 진행했는데 올해도 색다르게 준비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송년 모임은 12월 넷째주(22일~28일)에 집중됐다. 송년회 성수기 2위는 12월 셋째주(12월 15~21일), 3위는 12월 둘째주(12월 8~14일)이었다.

직장인의 송년회 유형(*복수응답) 문항에서는 '친구 모임'(75.3%), '가족 모임'(60.9%), '회사 모임'(33.5%)이 주를 이뤘다. 나홀로 송년회를 열겠다는 답변도 4.1%나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송년회 꼴불견 1위는 '잘난 척 하는 사람'(23.8%)이 선정됐다. 2위는 '술버릇 고약한 사람'(20.3%), 3위는 '돈 안 내는 사람'(13.7%)이었다. 직장인 송년회 예상 지출 금액은 23만2900원으로 집계됐다.

세대별 차이는 송년회 음주문화에서도 드러났다. 송년회 모임에서 즐기기 좋은 주류로 20대와 30대는 '맥주'를 1위로 꼽았지만 40대 이상은 '소주'를 택했다. /정은혜기자 ehmuse@

미래 감각 돋보이는 콤팩트 SUV

■ 링컨 MKC

콤팩트 SUV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BMW X3와 메르세데스 벤츠 GLK, 아우디 Q5가 주름잡던 시장에 최근 들어 포르쉐 마칸, 렉서스 NX가 가세한데 이어 이번에는 링컨 MKC가 뛰어들었다.

많은 경쟁차종 사이에서 링컨 MKC의 존재감은 단연 돋보인다. 펼친 날개 형상의 그릴과 매끄러운 곡선, 후면 전체를 가로지르는 테일램프 등에 링컨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담았다.

실내는 더욱 놀랍다. 대시보드와 도어 패널은 가죽과 우드 그레인 소재로 정교하게 감쌌으며 수준 높은 마무리를 보여준다. 대신 뒷좌석은 경쟁차보다 좁아 보인다. 실내 크기를 좌우하는 휠베이스(앞뒤 바퀴 축간 거리)의 경우 BMW X3가 2810㎜인데 비해 MKC는 2690㎜로 120㎜가 좁다. MKC는 아우디 Q5(2807㎜)나 벤츠 GLK(2755㎜) 등에 비해서도 열세다.

센터 콘솔에는 링컨이 자랑하는 버튼식 변속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 버튼식 변속 시스템은 말 그대로 기어 레버 대신 버튼으로 P(주차) R(후진) N(중립) D(드라이브) 등의 기능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센터 콘솔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대신 기어 레버 방식에 익숙한 대다수 운전자들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앞뒤로 이동하며 주차할 때는 버튼을 누르는 게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리 어려운 동작은 아니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큰 문제가 없다.

파워트레인은 직렬 4기통 2.0 에코부스트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했다. 동급에서 BMW와 벤츠-아우디는 디젤만 갖추고 있고 포르쉐는 나홀과 가솔린을 렉서스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로 승부하는 데 비해 링컨은 오로지 가솔린 터보 한 종류만 내세우고 있다.

MKC는 차체가 크지 않은 데다 터보차저의 위력 덕에 몸놀림이 경쾌하다. 3000rpm에서 터지는 37.3㎏.m의 최대토크는 저속과 중속, 고속까지 꾸준하게 고른 가속감각을 유지한다. 컴포트, 노멀, 스포트 등 3가지 감도로 조절되는 링컨 드라이브 컨트롤도 운전을 즐겁게 해준다. 과거 물렁거리던 미국차의 감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조용한 실내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술 덕분이다. 가속 때 발생하는 잡음을 반대 파장을 발생시켜 상쇄하는 첨단 기술 덕에 탑승자의 귀에는 잡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

파워 넘치는 엔진과 탄탄한 주행감각은 유럽차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다만 포드-링컨의 가솔린 터보 엔진은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게 흠이다. MKC의 연비는 도심 7.9㎞/ℓ, 고속도로 11.0㎞/ℓ, 복합 9.0㎞/ℓ이고, 시가지와 간선도로를 절반씩 섞어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7.0㎞/ℓ를 기록했다.

링컨 MKC는 많은 경쟁차들 사이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갖추고 있다. 미래에서 온 듯한 독특한 디자인, 고급스러운 실내, 폭발적인 가속력 등이 MKC를 빛내주는 요소다.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과 전방 충돌 경고 장치, 핸즈프리 리프트 게이트 등의 첨단 장비도 빠짐없이 장착했다. 이러한 장점들을 갖추고도 유럽 경쟁차보다 다소 저렴한 4960만~5300만원의 가격대로 정해진 것도 매력적이다.

/fenrir@metroseoul.co.kr

▲한 줄 평가: 독창적인 스타일과 충실한 주행감각을 갖췄다. 연비는 다소 아쉽다 ▲별점: ★★★★(별 다섯개 만점)

편의보강 그랜저 하이브리드 출시

현대자동차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각종 사양을 보강한 2015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2015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안전성과 실용성, 감성품질을 고려한 다양한 편의사양을 확대 적용하고, 내 외장 디자인을 일부 변경해 고급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2015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차량 뒤쪽에 약 3초 이상 머물면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를 기본 적용하고 ▲차량 전복 때 에어백을 작동시켜 전복으로 인한 사고 발생 때 상해를 최소화 시키는 롤오버 센서(Rollover Sensor)를 새롭게 적용했다.

또 주행감을 높이기 위해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MDPS)의 데이터 처리 단위를(16bit→32bit) 개선해 조향 응답성을 향상시켰다.

2015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판매가격은 3460만원(세제혜택 후 판매가격)으로 ▲LED 안개등 ▲롤오버 센서 ▲스마트 트렁크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추가 적용하고도 기존 모델보다 10만원 낮게 책정됐다.

/임의택기자

<국산차 수입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아반떼 MD	-	1 160	1 170	1 230	1 430
	그랜저 HG	-	-	2 280	2 410	2 610
	싼타페 DM	-		1 980	2 610	2 760
기아	K5	-	1 440	1 490	1 610	1 750
	뉴카니발		1 290	1 440		-
	쏘렌토 R	-	1 760	1 910	2 120	-
쉐보레	말리부	-	-	1 700	1 890	2 010
	올란도	-	-	1 450	1 580	1 830
폭스바겐	티구안	-	2 530	2 890	3 000	3 250
	투아렉	3 150	3 450	-		-
BMW	뉴X3	2 900	3 600	4 290	4 850	5 49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기아차,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최

기아자동차는 국내 유망 인디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음악여행을 성황리에 마치고, 올해 프로그램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피날레 콘서트를 실시했다.

기아자는 2013년부터 여행,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기아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아 서프라이즈 위켄드(KIA Surprise Weekend)를 시행해왔다. 올해는 음악여행 테마에 기아 브랜드를 접목시켜 국내 20대에게 추억을 선사했다.

음악여행에 참여한 ▲루니 ▲로큰롤 라디오 ▲이유림 ▲본킴은 각각 남다른 개성과 감재력을 가진 국내 실력파 인디뮤지션이다. 기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열정을 지닌 아티스트들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음악여행은 11월 매주 주말마다 진행됐으며, 선정된 8명(동반 1인 포함, 총 16명)은 4팀의 인디뮤지션들과 함께 ▲영천 별별마을 ▲남이섬 ▲영주 무섬마을 ▲군산 설길마을 등 이색 여행지로 떠났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올 뉴 쏘렌토와 올 뉴 카니발을 타고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명소를 체험하는 동시에 인디뮤지션들이 준비한 특별한 미니콘서트를 즐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박정란씨(여·24)는 "평소 무대에서만 볼 수 있었던 뮤지션들과 일상 속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자동차여행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일 음악여행 신청자 300여명을 초청해 서울 JBK 컨벤션 홀에서 진행된 피날레 콘서트는 ▲루니 ▲로큰롤라디오 ▲이유림 ▲본킴 등이 참가자들과 함께한 특별한 주말여행에서 느낀 감성과 추억을 관객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음악여행을 통해 얻은 영감으로 색다른 라이브 공연을 펼치고, 서프라이즈 이벤트까지 준비했다.

/임의택기자

박 대통령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정론탁설
유 병 철
<언론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 문건'을 둘러싸고 폭로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대처방안을 놓고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문건이 보도된 직후만 해도 이를 '찌라시 수준'으로 치부하고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쪽으로 비교적 차분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폭로가 나오면서 박 대통령의 심경은 매우 착잡해지기 시작했다. "세상 바뀌는 날이 고민 끝나는 날"이라고 지난 2일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할 정도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제의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이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이 3인방을 둘러싼 비선 실세의혹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이번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들이 더 이상 대통령과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문건에는 정씨가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숨은 실세로 묘사돼 있다. 사실 이러한 일이 가능할지 많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3인방이 그대로 버티기에는 이미 한계에 달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신뢰를 잃었다. 지난날 크고 작은 인사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잡음과 갈등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물론 박 대통령의 정치역정이나 통치철학으로 미루어 지난 어느 정권에 비해 2인자 또는 실세들이 없을 수 없다고 해도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의 믿음을 얻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와 관계없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 적어도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낸다고 해도 1~2개월은 걸린다. 그동안 국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3인방이 비록 두터운 신의와 아끼는 인재라고 해도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리는 길이 최선이다. 제갈량이 아끼는 마속을 패전의 책임을 물어 눈물을 흘리면서 처형했다는 읍참마속은 지금까지 권력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큰 교훈이다.

비록 3인방이 참모로서 중대한 과오가 없다고 해도 이러한 파문을 일으킨 것 그 자체만으로도 박 대통령의 통치력에 큰 상처를 주었다. 물론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정운영을 하루 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지 않으면 희생(?)을 감수 할 수밖에 없다.

포토프리즘 '추위 타는 청계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의 인적이 드문 모습.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던 청계천도 계절의 바람 앞에 한산하기만 하다. /손진영기자 son@

르노삼성의 브랜드 이미지

뉴스룸에서
임 의 택
<경제·산업부장>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매각설에 휩싸이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홈플러스는 까르푸·월마트 등 외국계 대형마트가 줄줄이 철수하는 상황에서도 꿋꿋이 업계 2위를 지키고 있던 터라 유통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빅뉴스감이다.

홈플러스는 영국 유통기업 '테스코'와 삼성물산이 합작해 '삼성 홈플러스'로 출발했고, 이후 테스코가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서 순수 외국계 기업으로 거듭난 바 있다. 그러나 초창기 브랜드였던 '삼성 홈플러스'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도 삼성 계열사로 오인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삼성그룹의 좋은 이미지가 홈플러스의 성장에도 큰 기여를 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기자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 점이다. 프랑스 르노그룹이 인수한 삼성자동차가 '르노삼성'으로 재탄생해 성장한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삼성자동차가 출범 당시 심어 놨던 좋은 이미지는 한동안 르노삼성 성장에 큰 도움을 줬고, 이 때문에 아직도 르노삼성은 삼성그룹의 CI를 따른 브랜드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브랜드 효과에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는 법이다. 홈플러스의 일부 직원은 고객에게 돌아갈 경품을 가로채는가 하면,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한순간에 추락했음은 물론이다.

르노삼성의 경우는 지난 2008년 차량 결함을 숨겼다가 뒤늦게 리콜에 나서면서 체면을 크게 구긴 바 있다. 당시 르노삼성 홍보실에 근무했던 직원은 "쏟아져 나오는 기사와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고백할 정도였다. 이후 르노삼성의 점유율은 추락을 거듭했고 브랜드 이미지 또한 큰 타격을 입었다. 올해 르노삼성은 지난해보다 판매가 늘면서 한시름 놓은 상황이지만, 사실상 판매 증가는 스페인에서 수입해 파는 QM3 덕분이다.

오는 2020년까지 돼 있는 삼성그룹과의 브랜드 사용 계약의 연장 여부도 관심거리다. 2020년 이후에도 '르노삼성'이라는 이름은 볼 수 있을까. 홈플러스의 이미지 추락은 르노삼성의 미래에 물음표를 던지게 만든다.

이윤을 위한 商道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오랜만에 명동을 나갔다. 패션 소비의 중심이 강남으로 옮겨진 뒤로 명동은 점점 더 일반 소비재 시장으로 변모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래도 명동인데'라는 미련에 잊지 않을 정도의 횟수로 시장조사를 다녔다. 뭔가 하나라도 건질 게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고, 실제로 건지기는 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유니클로 매장의 폐점이었다. 한국에 SPA 패션을 전파시켰던, 개점 때부터 명동 패션의 새로운 상징으로 부각됐던 매장이 사라진 건 의외였다. 반사적으로 ZARA, H&M 매장을 확인했다.

버거킹 명동점은 젊던 시절의 추억이다.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재에도 유효했으니 일종의 매개체였다는 게 맞다. 기껏해야 햄버거 가게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맥도날드와 KFC 사이에서 젊은 층의 입맛뿐만 아니라 문화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명동문고는 선비의 기개를 지키는 서점이었다. 중로서적이 사라지면서 서점 시장은 독점에 가까웠다. 그 그늘 속에서 묵묵하게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은신처 역할을 해왔다. 명동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잠실에 새롭게 문을 연 쇼핑센터에는 면세점이 있다. 인근 백화점에 있었던 매장을 옮겼는데 상품구성이 명확했다. 고가의 패션 또는 잡화이거나 화장품이었다. 면세점 내에서 의류에 대한 기대를 품은 쇼핑을 하기에는 2% 부족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은 마주치기가 쉽지 않았다. 풍문에 따르면 한국인의 면세점 소비는 또 다른 곳에 집중됐다. 한 때 가장 편리하고 구매욕구에 대한 충족도가 높았던 그 면세점은 이제 우리의 공간이 아닌 듯했다. 그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유효한 건 틀림없다.

사업을, 장사를 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이유이자 사명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이윤이 클수록 시세는 커지기 마련이고 시장에서의 지배력도 강력해지기 마련이다. 한국 소비시장이 일본 관광객에게 촉각을 세웠던 시절이 있다. 일면 아직도 그렇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국 관광객에 모든 걸 맞추는 시장은 아니었다. 소비재 시장이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은 제주도 투자, 서울·경기권 투자, 제조업 기지화 등의 배경의 심각성을 말한다. 중국 관광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 그렇게 돈을 버는 일이 영원할까.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아래에서 돈을 번다는 것의 의미는 화폐의 축적 수준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이윤을 위한 상도란 것도 있지 않을까. 장사 역시 사회구조의 한 부분일테니까.

/인디케이션컬렉션(www.ic.co.kr) 대표

'지배구조 개선' 허공 속 메아리

기자수첩
박 아 란
<금융시장부 기자>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난맥상은 주주가치와 해당 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정과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 금융분과 회의 연석회의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발언이다.

신 위원장은 당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엄벌예고하며 CEO승계 리스크와 사외이사 권력화 등의 문제점에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그가 외쳤던 '지배구조 개선안'은 허공 속의 메아리에 그쳤다.

은행권 CEO 자리가 줄줄이 교체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사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음에도 낙하산인사와 외압설 등 선출 과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일 취임한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선임 과정 역시 내정설이 흘러나오는 등 선출과정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우리은행 차기 행장 선임 과정 또한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순우 은행장이 연임을 포기한 후 이광구 부행장이 차기 행장에 최종 내정됨에 따라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들의 모임)'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됐다. 여기에다 KDB대우증권 신임사장에 홍성국 리서치센터장 겸 부사장이 낙점되면서 '정치금융'을 넘어 신(新) 관치금융 시대가 왔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장후보추천위원회가 허울 뿐이라는 이야기는 당연하고,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도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배구조 개선안은 논문이나 가르침이 아니다. 이제는 금융당국이 나서 책임지고 시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수입량 급증 '건강 기능식품 톱3'는?

아몬드·렌틸콩·블루베리… 건강+다이어트 효과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몸이 움츠러들어 활동량이 자연스레 줄어들고 있다. 특히 송년회와 신년회 등의 모임이 연이어 잡힐 경우 겨울철 몸매 관리에 더욱 큰 부담이 가게 된다.

체중계의 변화가 신경 쓰인다면, 충분히 몸을 움직여주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 건강과 체중 관리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최근 수입량이 급증한 세 가지 건강 기능 식품을 소개한다.

◆체중 관리에 필수! 아몬드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아몬드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수입된 캘리포니아 아몬드는 2426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나 급증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아몬드의 99%는 캘리포니아산이다.

아몬드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한 줌으로도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식사와 식사 사이에 섭취할 경우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

지난해 미국 퍼듀대학교 리처드 매티스 교수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4주간 매일 간식이나 식사에 포함해 약 43g의 아몬드를 섭취해도 일일 열량·체중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공복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 시스타의 효린도 몸매 관리를 위해 아무 것도 가미하지 않은 통아몬드를 즐겨 먹는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이효리가 사랑한 렌틸콩

렌틸콩은 얼마 전 가수 이효리가 자신의 블로그에 식단으로 소개해 화제가 됐다. 모양이 렌즈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녹두와 비슷한 콩과 식물이다.

바나나의 12배, 고구마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유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건강 전문잡지 '헬스'는 렌틸콩을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런 인기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렌틸콩 수입량은 작년 366톤에서 올해 2827톤 이상으로 무려 750%나 증가했다.

◆눈 건강+다이어트까지, 블루베리

눈이 침침해지면 블루베리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블루베리는 시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A·B·C·E가 풍부해 비타민 보충에 도움이 되며, 섬유소도 다량 함유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블루베리는 올해에만 총 680톤 이상이 수입됐다. 국내 블루베리 농가의 재배 면적도 2010년 532ha에서 현재 2000ha에 육박한다. 덕분에 비싼 가격으로 유명했던 블루베리 가격도 매년 10~15%씩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블루베리는 주스로 갈아 마시거나 우유·요구르트에 넣어 먹기도 한다. 최근에는 동결 블루베리로 섭취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장경필기자 jvmp@metroseoul.co.kr

완구업계 '크리스마스 대목 잡기'

또봇 vs 카봇… 신제품·프로모션으로 승부수

완구 업계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다. 연 중 11~12월에만 전체 매출의 30%가 발생하는데다, 크리스마스가 연말 매출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에 크리스마스 시점에 맞춰 신제품을 쏟아내고, 대형 마트 등 주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판촉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영실업은 '또봇'을 내세워 크리스마스를 공략한다.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SNS 쇼핑몰 등 다양한 채널을 통용해 주력 브랜드인 또봇을 홍보한다.

출시 5주년을 맞아 이달 28일까지 대형 마트에서 또봇 일부 모델에 한해 20% 할인행사를 연다. 이 외에 또봇·바이클론즈·시크릿쥬쥬 등 브랜드 별 구매 고객에게 한정 수량 경품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에서는 '또봇 델타트론'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또봇 새 제품을 증정해주는 이벤트를 열고, 김포 롯데몰에는 약 8m 높이의 '또봇 델타트론 조형물'을 설치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달군다.

10월까지 올해 매출 목표의 80%를 이미 달성한 영실업은 남은 기간 동안 1000억원은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손오공은 크리스마스까지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미니카와 카드, 변신완구를 결합한 '터닝메카드'를 출시한데 이어 5대의 카봇이 합체해 하나의 카봇으로 만들어지는 '펜타스톰'을 선보인다. 펜타스톰은 8일 투니버스, 26일 KBS1TV에서 방영되는 크리스마스 특별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이 외에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의 4단 변신 무기 1종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출시와 함께 주요 마트에 시연 도우미 440여명을 배치해 신제품을 홍보한다.

업계 관계자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성수기이다 보니 이를 대비해 업계들이 신제품을 많이 쏟아낸다"며 "신제품을 비롯해 기존 제품들도 늘어나는 수요를 감안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0213@

"동장군 맹위, 면역력 증진 건강선물을~"

강강술래,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40% 할인
'그녀를 믿지마세요' 공연티켓도 무료증정

동장군이 연일 맹위를 떨치는데다 연말 잦은 회식과 술자리로 몸의 저항능력(면역력)이 더욱 떨어져 감기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건강선물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온라인쇼핑몰(sulla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오는 21일까지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박스(800ml 6팩 18인분)는 3만8800원, 소용량박스(350ml 10팩 20인분) 3만78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같은 기간 영광 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해 만든 국내산 보리굴비세트(20마리)도 약 50% 할인된 6만4000원에 판매한다.

또 오는 28일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대학로 예술공간 유비누리 엠질 전용관에서 공연되는 '그녀를 믿지 마세요' 공연티켓도 증정한다.

사랑을 만들어 주는 연애컴퍼니를 배경으로 주인공이 2년간의 짝사랑이 결실을 맺는 과정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보여준 로맨틱 코미디로 재치와 폭소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전반에 녹아있어 공연 내내 지루할 틈이 없게 만들어 작품성은 물론 재미까지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한다.

한편 강강술래는 온라인쇼핑몰 팀장을 공개 채용한다. 온라인마케팅 및 상품기획, 종합몰·오픈마켓 관리 등을 담당하며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kkfds24@sullai.com)로 접수하면 된다.

/정해일기자

사상 최대 '크리스마스 완구 대전'

홈플러스, 20~50% 할인

홈플러스(사장 도성환)가 자사 최대 규모의 크리스마스 완구 대전 행사를 벌인다.

전국 점포에서 250만 개의 사상 최대 물량을 준비하고, 상품별로 20%에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11일부터 3/6/9만원 이상 구매 때 히어로즈 3종사(슈퍼맨·원더우먼·배트맨) 피규어를 1개/2개/3개 제공하며, 하루 최대 3개까지 증정한다.

오는 15일에는 소셜 커머스 티켓몬스터를 통해 홈플러스 완구 30% 할인권을 10만장 한정수량 판매하고(1인 2매 한정), 18일부터 25일까지는 제휴 신용카드로 완구 5만원 이상 결제 때에는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용영일기자

롯데리아, 해외 1호점 하노이에 오픈

내년 15개 가맹점 목표

롯데리아(대표 노일식)는 지난 2일 베트남에 해외 최초 가맹 1호점인 '쭝간점'을 공식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매장은 베트남 하노이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100평 규모의 대형 매장이다.

롯데리아는 베트남 가맹점 운영을 위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현지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여하고 현지 언론 홍보를 통해 가맹유자를 적극 추진했다고 한다.

롯데리아는 이번 베트남 가맹 1호점 매장 운영을 통해 2015년까지 호치민, 하노이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15개 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정영일기자

당신이 선택한 영웅, 세상이 기다린

ZORRO
THE MUSICAL
Final Ticket Open 11.5
2014.12.5~2015.1.3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FEATURING THE WORLD FAMOUS HITSONGS OF THE GIPSY KINGS | BASED ON AN ORIGINAL STORY BY ISABEL ALLENDE

겨울철 '향기로운 보디' 만들기

각질 제거-보습-탄력-퍼퓸 효과까지

두꺼운 옷을 입는 겨울철에는 얼굴 보습에만 신경 쓰고 보디케어에는 소홀하기 쉽다. 하지만 진짜 미인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관리한다. 건조한 날씨로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을 잠재우고 좋은 향기까지 나는 보디 만들기 팁을 공개했다.

잦은 샤워는 각질층을 파괴하고 수분 손실을 가져와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 샤워는 미온수로 하루에 한 번, 15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시작단계에는 미온수로 모공을 열어 노폐물을 제거하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차가운 물로 모공을 닫아 주는 것이 노하우다.

이 때 퍼퓸 샤워젤을 사용하면 은은한 향이 지친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동시에 샤워 후에도 촉촉하면서도 향긋한 피부결을 유지할 수 있다.

샤워 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디 제품을 꼼꼼히 발라주면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 보다 효과적인 보습이 가능하다. 특히 욕실 문을 열기 전 수증기가 남아있을 때 보디 로션을 발라야 한다. 일반 로션 대신 향이 추가된 제품을 사용하면 보다 오랫동안 향을 지속시킬 수 있다.

크림을 발라도 건조함이 느껴질 땐 보디오일을 활용한다.

기존에 쓰던 제품에 오일을 4~5방울 정도 떨어뜨린 뒤 섞어 사용하면 된다. 샤워 후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가벼운 마사지를 하면 피로를 풀 수 있다. 오일을 섞은 보습제를 활용해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매끈한 보디라인을 가꾸는데 도움을 준다. /서지원기자

올겨울 '코트' 트렌드 "개성을 살려라"

체크·팝컬러·오버사이즈 선택 바람직

이번 시즌 평범함을 추구하는 '놈코어(Normcore)' 패션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겨울 코트 역시 기본 아이템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스타일이 각광을 받고 있다.

블랙·네이비 등 칙칙한 겨울룩에 지루함을 느꼈다면 체크무늬가 가미된 코트를 선택하는 게 좋다.

클래식한 느낌의 체크무늬는 어떤 아이템과도 잘 어울려 코디하기 간편하고, 그 자체로 포인트가 돼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다. 특히 타탄 체크 무늬는 특유의 빈티지한 감성까지 더해져 한결 멋스럽다.

◆팝컬러 롱 코트로 발랄하게

패턴이 없는 단색 코트도 잘만 선택하면 근사한 옷차림을 완성할 수 있다. 핑크·블루 등의 팝컬러 코트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코트가 화려한 만큼 다른 액세서리는 최대한 줄이고 머플러나 모자 등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다.

◆오버사이즈 롱 코트로 우아하게

몇 년 동안 유행했던 스키니진의 아성을 최근 넉넉한 '보이프렌드 진'이 위협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의 영향으로 올겨울 코트도 수수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오버사이즈 가 인기를 끌 전망이다. 무난한 오버사이즈 핏의 코트는 깔끔한 스타일로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해준다.

올리비아로렌 관계자는 "이번 시즌 코트를 고를 때 컬러와 실루엣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유행이라고 무조건 따르기 보다는 자신의 체형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지원기자 sea@metroseoul.co.kr

기능성 상품, 해외 온라인서 인기

희소성 내세워 새로운 수요 창출 기대

가성비와 희소성을 내세운 국내 기능성 상품이 해외 온라인 몰에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 대중화되지 않은 상품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카페24를 운영하는 심플렉스인터넷에 따르면 기능성 의류를 취급하는 기어릭스(사진)는 올해 초 미국 아마존닷컴에 입점해 월평균 10%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는 발열과 냉감, 방충 기능을 갖춘 원단을 직접 개발해 특허까지 취득했다. 해외 고객 문의가 늘면서 영문·중문·일문 등 온라인 쇼핑몰도 열었다.

영유아 두상 교정과 아토피를 예방하는 베개로 알려진 '지오 필로우'도 최근 아마존닷컴에서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 업체는 영유아의 자세성 두상 변형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성 베개로 특허를 취득한 바 있으며 대한아토피협회에서의 검사도 통과했다고 한다.

아마존닷컴에 입점한 '수니마미'가 판매하는 상품은 손수건에 쪽쪽이를 달아 목에 두르는 형태로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 주목도를 높이는 데 주효했다.

이재석 심플렉스인터넷 대표는 "해외 온라인 마켓은 저렴한 국내 상품들이 다양화되는 추세"라며 "기능과 아이디어를 가미한 기능성 상품들은 새로운 수요를 만들며 해외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illegible]

동국제약, 문화 공연 나눔활동

'호두까기 인형' 발레 공연 후원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는 동국제약(대표 이영욱)이 이번에는 문화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초청하는 '호두까기 인형' 발레 공연을 후원했다.

지난 6일과 7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한국발레재단이 공동 주최해 문화 소외계층 어린이 600여 명을 초대했다.

이에 동국제약은 이번 공연을 후원했으며 특히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후원회장 최불암을 비롯해 나눔대사 고두심, 홍보대사 김경란 등이 동국제약의 '인사돌' 모델로 활동한 바 있어 인연이 깊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 공연을 통해 소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legible]

건강과 맛을 동시에~

특급호텔, 다양한 '참복' 프로모션 선봬

특급호텔들이 겨울을 맞아 겨울철 별미인 '참복'을 이용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는 다양한 프로모션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일식당 만요에서 일본 전통 가이세키요리의 대가인 나가쯔마 사토루 셰프의 추유 가이세키 메뉴를 마련했다.

서울팰리스호텔 일식당 다봉에서는 참복을 이용한 다양한 특선요리를 맛볼 수 있다. 회와 탕은 물론 복껍질을 초무침해 감칠맛을 더한 복가와까지 준비된다.

르네상스 서울 호텔의 일식당 이로도리에서는 복어 조리의 지리, 매운탕 등을 즐길 수 있으며 복어 코스요리로도 참복의 진미를 만날 수 있다.

롯데호텔서울은 일식당 모모야마에서 복요리 특선을 선보인다. 가격에 따라 6가지와 8가지 코스요리가 제공된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의 일식당 순미는 겨울 특선 복어 미식요리로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진미와 전채, 3종 복 사시미 등이 순서대로 차려진다.

밀레니엄 서울힐튼도 일식당 겐지에서 코스요리와 단품요리를 통해 참복 특선요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의 일식당 스시효, 그랜드 힐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등이 참복 메뉴를 판매한다. /[illegible]

밀양얼음골사과축제는 얼음골사과의 우수성을 알리는것은 물론 풍년기원제(왼쪽 사진)와 밀양아리랑 플래시몹 공연(오른쪽 사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미를 더했다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제공

얼음골사과의 매력에 빠지다!

지난 주말 서울 청계광장서 '밀양얼음골사과축제' 한마당 다양한 요리와 행복한 먹거리, 재미난 놀거리가 가득

지난 6일과 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다양한 사과요리와 행복한 먹거리, 재미난 놀거리가 가득한 사과 축제가 열렸다.

바로 전국 최고의 꿀사과 등 맛보고 즐길 수 있던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회장 정범수)의 제17회 밀양얼음골사과 축제 였다.

'밀양이 춤춘다 밀양을 노래한다'를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지리적 표시 제24호로 지정돼 정부가 인정한 지역 명품인 얼음골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얼음골사과는 삼복 더위에도 얼음이 얼고 밤낮의 온도차가 뚜렷하며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이 있는 밀양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재배된 사과다. 당도가 높은 것은 물론 씹는 맛과 향기가 좋아 꿀사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축제 첫 날인 6일 오전 명예홍보대사 위촉식과 함께 축제는 시작됐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을 위한 얼음골사과 깜짝 경매와 관람객 나눔 이벤트가 진행됐으며 갑내게줄당기기와 밀양 변흥상원놀이, 밀양백중놀이 시연 등이 펼쳐졌다.

또 풍년기원제와 밀양아리랑 플래시몹 공연 등은 축제의 색다른 매력을 보여준 무대였다. 특히 얼음골사과요리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으며 얼음골사과 무료 시식 코너도 인기를 끌었다.

7일에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방문객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사했다. 6일과 마찬가지로 얼음골사과 깜짝 경매가 이어졌으며 청계광장의 보물을 찾아라 이벤트와 밀양아리랑 소원나비 체험도 빼놓을 수 없는 코너였다.

게다가 ▲그림사과전시 ▲우수재배전시관 ▲사과품종전시관 등이 운영돼 얼음골사과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밀양 특산물 판매장과 얼음골사과 판매장 등에서는 밀양 특산물이 저렴하게 판매됐다.

내년에는 밀양 현지에서 축제를 벌인다. 협의회는 올해를 시작으로 다도시와 현지에서 순차적으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과 수확에 맞춰 11월 첫 주에 밀양이 자랑하는 억새와 천황산 단풍을 연계한 관광축제로 축제를 업그레이드하고 방문객에게 사과의 참맛과 함께 다양한 재미를 한 번에 선물한다는 계획이다.

정범수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회장은 "축제는 좋은 사과, 건강한 사과, 품질 좋은 사과인 얼음골사과를 널리 알리는 자리다. 내년에는 얼음골사과의 맛과 품질만큼 풍성하고 잊을 수 없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특별한 크리스마스!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동에 위치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그랜드 오픈 후 첫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한다.

먼저 25일까지 ▲산타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산타와 함께 댄스타임 ▲산타와 함께 포토타임 ▲펭귄 캐릭터 펀코&핀키 포토타임 등 다양한 고객 참여 이벤트가 열린다.

이벤트는 1일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펀코&핀키 포토타임은 하루에 두 번 참여할 수 있다. 또 아쿠아리움은 이벤트들 통해 당첨된 고객에게 아쿠아리움 캐릭터 선물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5년간의 롯데월드 어드벤처 노하우를 바탕으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만의 차별화된 크리스마스 산타밴드 공연도 펼쳐진다. 문의 1661-2000 /황재용기자

'인터스텔라' 주인공처럼?

흥미진진한 우주모험을 다룬 영화 '인터스텔라'가 인기다. 이에 도심 속에서 우주탐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명소로 뜨고 있다.

먼저 도심에서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서울 용산구 과학동아 천문대와 서대문구 연세대 천문대가 있다. 서울 중심부에서 천체 관측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단 두 곳 모두 예약제로 운영돼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중원우주체험관은 다양한 우주체험물과 우주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축소된 우주선 안을 관람할 수 있고 우주복 모형에 들어가 우주인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또 국제우주정거장과 진공실험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으며 천체 투영실에서는 원형돔에 투영된 영상 물을 관람할 수 있다.

도심 속 우주탐험 프로그램 인기

인천시 중구의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가족과 함께 천체망원경을 만들 수 있다. 직접 제작한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할 수 있으며 3차원 달 모형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있다.

안사동에 위치한 오감만족 테마파크 박물관은 살아있다에서는 우주에 온 듯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트릭아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현실에서 쉽게 체험할 수 없는 우주탐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트릭아트로 설치된 작품들이 눈 앞에 입체적으로 펼쳐지며 색다른 재미를 준다. /황재용기자

배불뚝이 중년 아저씨들의 '록 스피릿'

기타리스트 카일 개스와 결성한 밴드…3장의 정규 앨범
영화로 보여준 끼와 음악에 대한 열정, 무대에서 그대로

할리우드 영화 '스쿨 오브 락' '쿵푸 팬더' 등으로 국내 팬들에게 친숙한 배우 잭 블랙(45)이 록커로 한국을 찾았다. 매서운 추위가 연일 이어지던 5일 밤 잭 블랙의 밴드 테네이셔스 디 내한공연이 열린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은 묵직한 록 사운드로 후끈 달아올랐다.

이날 오프닝을 맡은 인디 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는 "테네이셔스 디의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은 제대로 놀 준비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대로 테네이셔스 디는 약 2시간 동안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열정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다.

◆ 잭 블랙은 '진짜 록커'

영화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에서 마빈 게이의 노래를 열창하던 모습과 '스쿨 오브 락'에서 학생들에게 록을 가르쳐 주던 가짜 음악 선생님을 연기하던 잭 블랙을 떠올린다면 무대 위의 '록커' 잭 블랙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잭 블랙과 기타리스트 카일 개스(54)가 1994년에 결성한 록밴드 테네이셔스 디는 지금까지 총 3장의 정규 음반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2006년 영화 '테네이셔스 디 인 더 픽 오브 데스티니'에도 출연해 코믹한 연기를 펼쳤다. 하지만 이들이 '코믹 밴드'인 것은 결코 아니다. 테네이셔스 디가 2001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 '트리뷰트'는 미국에서 100만장 이상 팔리며 플래티넘을 기록했다. 또 펄 잼·푸 파이터스 등 유명 록밴드 공연의 오프닝 무대에 오르며 록커로서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카일 개스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신명나는 오프닝 공연 후 무대는 암전에 휩싸였다. 어둠 속에서 기타와 드럼 등 악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한겨울의 추운 날씨와 어울리지 않는 반팔 차림의 잭 블랙과 카일 개스가 등장했다. 히트곡 '트리뷰트'의 전주 부분인 어쿠스틱 기타 연주가 흘러나오자 관객들은 환호성으로 그를 맞이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노래"라는 잭 블랙의 설명으로 시작된 '트리뷰트'는 테네이셔스 디의 정체성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곡이었다. 잭 블랙을 그저 코믹 연기의 대가로만 알고 있는 관객이라면 그의 화려한 기타 플레이에 놀랐을 것이다.

◆ 한 편의 뮤지컬 같은 록 공연

이날 잭 블랙과 카일 개스는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만큼 무대 위에서 완벽한 궁합을 보여줬다. '라이즈 오브 더 피닉스'를 부른 뒤 두 사람은 한국 관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다가 이내 싸우는 시늉을 했다. 잭 블랙은 카일 개스에게 면박을 줬고 개스는 "밴드를 관두겠다"며 무대 뒤로 사라졌다. 마치 한 편의 뮤지컬 같은 연출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개알연기와 대기" 잭 블랙은 무대 뒤로 따라 들어가 "제발 이러지마. 친구. 나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마약도 필요하고"라며 그만의 유머감각이 돋보이는 대사를 던졌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자 그는 "이런 마이크가 켜져 있었군"이라며 능청을 떨었다.

허겁지겁 무대 위로 다시 올라온 잭 블랙은 카일 개스 없이 '듀드'를 부르기 시작했다. 잭 블랙은 "아이 토들리 미스 유"가 반복되는 가사를 읊으며 개스를 그리워했다. 개스는 조심히 모습을 드러냈고 두 남자는 격한 포옹을 나눴다. 하지만 이 장면마저 웃음을 자아냈다. 두 배불뚝이 아저씨가 기타를 옆에 들러멘 채 포옹하려니 몸이 닿지 않아 껑충댄 것. 음악은 진지했지만 연출은 유머러스했다. 이것이 바로 테네이셔스 디의 매력이었다.

◆ 쇼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잭 블랙이 출연한 수많은 영화들 중 단 한 편이라도 본 관객이라면 그가 가진 엄청난 끼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터. 스크린을 뚫고 나온 그의 끼는 이날 라이브 무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장난치듯 진지하게 록을 노래하던 잭 블랙은 '재즈'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이날 잭 블랙은 재즈에서 가사 대신 "다다다다다다" 등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 노래하는 창법인 스캣에 도전했다. 기타·베이스·드럼 등 세션의 연주에 맞춰 스캣을 흥얼거리던 그는 갑자기 "스캣, 스캣, 깃캣, 깃캣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캔디"라고 말했고 관객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개스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즉흥 연주 도중 갑자기 리코더를 꺼내 들었다. 개스의 어설픈 리코더 연주에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개스는 더 큰 리코더 한 개를 더 꺼내 들어 입에 물었다. 그런 그의 곁에는 '짝꿍' 잭 블랙이 있었다. 그는 개스의 형편없는 연주에도 연신 감탄한 표정을 지었다.

공연이 종반에 접어 들었을 무렵 잭 블랙은 "쇼는 반드시 계속 되어야 한다(The show must go on)"고 말했다. 그 말대로 이날 잭 블랙과 카일 개스는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가 모두 땀으로 젖을 정도로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다. 어느덧 공연은 막바지로 접어들었고 테네이셔스 디는 '더 픽 오브 데스티니'를 마지막 곡으로 선택했다. 코믹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무대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앙코르 요청이 쏟아졌다.

땀에 젖은 티셔츠를 갈아입고 무대 위로 다시 올라온 잭 블랙은 "딱 두 곡만 더 부를 거다. 내일 공연에는 오늘과 다른 노래 3곡을 부를 것이니 또 오라"며 능청을 떨었다. '더 쿠' 'FHG'를 앙코르로 부른 잭 블랙은 "내일은 또 다른 티셔츠 두 장을 입을 것이니 또 오라"고 말하며 아쉬워하는 관객들에게 "땡큐 굿나잇"이라고 작별 인사를 건넸다.

/김지민기자 langkon@metroseoul.co.kr

디자인/김아람

잭 블랙

마녀와 미녀의 닮은 듯 다른 '복수'

여주인공 복수 다룬 MBC '전설의 마녀'·SBS '미녀의 탄생'
비결은 '제빵 기술·미모'… '선생님'과의 달달한 로맨스

주말 저녁 MBC '전설의 마녀'와 SBS '미녀의 탄생'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여주인공들의 복수를 이야기한다. 복수 방법부터 여주인공에게 다가온 사랑까지 비슷한 듯 다른 전개로 시청자에게 통쾌함을 선사하고 있다.

'전설의 마녀'에서 한지혜가 쓰는 복수법은 제빵 기술이다. 한지혜가 분한 문수인은 배운의 재벌가 며느리다. 고아 출신인 그는 재벌 기업 신화 그룹의 며느리가 되지만 남편과 사별한 뒤 주가 조작 누명을 쓴 채 구속됐다. 그는 교도소에서 배운 빵 만드는 기술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6일 방송된 '전설의 마녀'에서 문수인은 취직이 쉽지 않아 트럭 빵집을 운영하기로 했다. 재벌과 겨루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실력으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문수인의 각오가 향후 극 전개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제빵 선생님 남우석(하석진)은 문수인의 성공을 돕는다. 이날 방송에서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며 가까워졌다. 모두 배우자와 사별한 아픔이 있다. 또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란 공통된 경험이 있다. 서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된 두 사람의 사랑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한지혜의 복수법이 '제빵 기술'이라면 '미녀의 탄생' 한예슬의 복수 비결은 미모다. 한예슬은 남편의 배신과 시댁의 버림을 받은 뒤 전신 성형수술로 딴 사람 정도가 아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사라 역을 맡았다. 완벽한 미녀지만 내면은 아줌마인 캐릭터다.

사라의 계획은 전남편 이강준(정겨운)을 미모로 유혹한 뒤 그의 파렴치한 행동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다. 사라는 갑자탕을 먹다 시민들에게 찍혀 '먹방 미녀'로 스타가 됐다. 현재 손맛을 살려 요리 대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 성공에 한걸음 가까워졌다. 남편만 바라보다 버림받고 성형을 해 유명인이 된 그의 복수가 본격화된 셈이다.

'전설의 마녀' 문수인에게 제빵 선생님이 있다면 '미녀의 탄생' 사라에게는 '그냥 선생님'이 있다. 괴짜 천재이자 요식업 대표인 한태희(주상욱)다. 그는 사라를 만든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강준과 불륜 끝에 결혼한 교채연(왕지혜)을 짝사랑했던 인물이다. 이강준과 교채연을 떼어 놓기 위해 시작된 사라 한태희의 '동맹'은 사랑을 꽃피우고 있다. 작품은 매회 아줌마-선생님의 티격태격 로맨스로 재미를 더하고 있다.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청자의 응원을 이끌어 내는 복수 이야기인 '전설의 마녀'와 '미녀의 탄생'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지성·황정음의 '비밀' 연애

킬미 힐미 캐스팅 7개 인격남♡정신과 의사
대세 배우 박서준 출연 "여심 공략할 것"

배우 지성(사진 왼쪽)·황정음(오른쪽)·박서준이 MBC 새 수목드라마 '킬미, 힐미'에 출연한다.

지성은 7개 인격을 가진 재벌 3세 차도현 역을 맡았다. 차도현은 유년 시절 얻은 트라우마 때문에 해리성 주체 장애(다중인격장애)를 앓는 인물이다. 비밀 주치의의 도움을 받아 사라져버린 기억의 퍼즐을 찾아 헤맨다.

지난 7월 개봉된 영화 '좋은 친구들'에서 깊이 있는 내면 연기로 호평 받은 그는 '킬미, 힐미'로 7색조 변신을 해 연기 내공을 발휘할 예정이다.

황정음은 차도현의 비밀 주치의인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오리진으로 분했다. 오리진은 청순가련한 외모와 달리 지저분하고 질질 맞은 성격에 먹성이 대단한 캐릭터다. 자신의 환자인 차도현과 비밀스러운 사랑을 한다.

SBS 드라마 '끝없는 사랑' 종영 후 2개월 만에 차기작을 선택한 황정음은 "휴식이 필요했지만 대본이 워낙 좋아 놓치기 아까웠다"며 "'해를 품은 달' 진수완 작가와 '마일랜드', '스캔들' 매우 충격적인고 부도덕한 사건' 김진만 감독 등 제작진에 대한 신뢰가 한몫 했다"고 출연 이유를 전했다.

지성과 황정음은 지난해 KBS2 드라마 '비밀'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당시 작품은 수작으로 호평받으며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의 재회가 큰 기대를 받는 이유다.

오리진의 쌍둥이 오빠 오리온 역에는 박서준이 출연한다. 천재 추리소설가이며 비상한 두뇌를 지녔지만 행동은 바보스럽다.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인물이기도 하다.

김진만 감독은 "20대 남자 배우 중 가장 핫한 배우 중 한명인 박서준이 함께 해 든든하다"며 "박서준이 여성 시청자의 마음을 공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킬미, 힐미'는 다중인격장애를 앓는 재벌 3세와 정신과 의사의 로맨스, 이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다룬 작품이다. 내년 1월 7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윤미래 3년 만에 신곡 발표

타이거JK 함께한 '엔젤'

가수 윤미래가 오는 8일 신곡 '엔젤'을 발표한다.

윤미래는 지난 6일 소속사 필굿 뮤직을 통해 3년 만에 발표하는 신곡 '엔젤'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분의 천사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신곡 발매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이번 영상에서 윤미래는 남편이자 음악 동료인 타이거JK와의 키스신을 예고하며 자신이 가장 감사하고 싶은 최고의 '천사'는 타이거JK임을 밝혔다.

윤미래가 작사·작곡하고 타이거JK와 비지가 공동 작곡에 참여한 '엔젤'은 힘든 삶에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천사 같은 존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내용의 노래다. 소속사는 "'엔젤'을 맞아 누구나 자신만의 '천사'를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카스텐의 기타리스트 전규호가 녹음에 참여했다. 조용필 등 정상급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룸 펜스' 감독이 뮤직비디오를 맡았다.

한편 윤미래의 소속사인 필굿뮤직은 '엔젤'을 시작으로 내년 나이 [illegible] 노석트 그룹 MFBTY 등의 본격적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

발라드로 돌아온 솔비

8일 '사랑 하나면 되는데' 발표

가수 솔비가 오는 8일 정오 디지털 싱글 '사랑 하나면 되는데'를 발표한다.

솔비의 신곡 '사랑 하나면 되는데'는 지난해 발표한 '없다'를 함께 작업했던 작곡가 김진환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노래다.

겨울에 어울리는 발라드 곡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랑 속에서 힘겨워하는 연인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다. 솔비는 절제된 표현과 담백함을 강조한 창법으로 진솔하고 솔직하게 감성을 표현했다.

솔비는 지난 3월 본명 권지안으로 어쿠스틱 음반 '상큼한 아이스크림 같은 나는 31'을 발표해 음악적 변신을 시도했다. 이번 노래는 '없다'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선보이는 발라드 곡인 만큼 그동안 성숙해진 솔비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관계자는 "솔비는 방송 활동 뿐 아니라 전시회, 집필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쁜 일정이지만 공연과 음반 준비 등 음악과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이번 앨범에도 남다른 열정과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했다. 더욱 탄탄해진 음악적 역량을 발휘해 스태프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솔비는 내년 초 발매를 목표로 정규 앨범도 준비하고 있다.

/김지민기자

거칠지만 가슴 뭉클한 손길

film review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가족 위해 모든 것 바친 가장의 이야기
투박함 속에 담은 공감대로 진한 울림

■국제시장

'국제시장'은 노년이 된 배우 황정민과 김윤진의 모습으로 막을 연다. 극중 부부인 덕수와 영자를 연기하는 두 사람은 부산 시내와 부둣가, 그리고 바다가 함께 보이는 집 옥상 위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카메라는 노부부 곁으로 날아온 나비 한 마리를 따라 사람들로 즐비한 시장 한 켠의 작은 가게 '꽃분이네'로 향한다. 그렇게 영화는 이 작은 가게를 꾸려온 평범한 노부부의 이야기로 관객의 마음을 이끈다.

이야기의 시작은 놓아버린 손이다. 1950년 12월 함경남도 흥남. 한국전쟁의 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피란길에 나선 어린 덕수는 동생 막순이의 손을 끝까지 잡지 못한 탓에 동생과 아버지와 생이별을 한다. 피란민들이 모여든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어머니, 고모와 함께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린 덕수는 엉뚱하지만 재미있는 친구 달구를 사귀며 유년기를 보낸다. 그러나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남과 북 사이에 철조망이 놓인 채 중단되자 덕수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다시 모일 수 없게 됐다는 사실에 아파하고 슬퍼한다.

아버지가 남긴 "내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라는 한 마디는 어린 덕수의 마음에 깊은 책임감으로 자리 잡는다. 청년이 된 덕수는 가족을 위해 독일로 떠나 광부로 일하고 전쟁이 한창인 베트남으로 몸을 던진다. 선장이 돼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싶다는 꿈을 이룰 기회가 손에 들어와도 그는 끝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버리지 못한다. 그렇게 꽃분이네는 덕수가 보낸 힘든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공간이 되어간다.

"우리가 겪은 고생을 우리 자식들이 겪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시장'의 이 대사는 베트남에 간 덕수가 아내 영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잘 담겨 있다. 영화는 아버지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좀처 사회적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국제시장'의 이 같은 메시지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역사를 지나치게 개인적인 관점에 바라보고 있다는 의문도 든다.

윤제균 감독의 영화는 거칠고 투박하다. 그러나 그 투박함 속에 녹아든 공감대로 관객에게 호소력을 발휘한다. '국제시장'의 후반부, 제사를 위해 모인 덕수의 자식들이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웃는 사이 덕수는 홀로 방에 들어가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다. 그 순간 관객의 마음을 흔드는 울림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동생을 놓아버린 덕수의 손으로 시작한 이야기는 두 손을 맞잡은 덕수와 영자의 모습으로 막을 내린다. 그렇게 '국제시장'은 거칠지만 가슴 뭉클한 손길을 관객에게 내밀고 있다. 12세 이상 관람가. 12월17일 개봉.

'터미네이터'도 리부트

'…제니시스' 내년 개봉, 이병헌 출연 '눈길'

'터미네이터' 시리즈도 마침내 리부트(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된다. '터미네이터 제니시스'가 내년 7월 개봉을 확정하고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1984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연출로 선보인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1991년 '터미네이터2'의 크나큰 성공과 함께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SF 시리즈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손을 떠난 이후에 나온 속편들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시리즈의 명성을 이어가지 못했다.

'터미네이터 제니시스'는 30년 만에 시리즈의 리부트를 알리는 작품이다. 로봇이 지구를 지배하는 2029년 인류 저항군과 로봇 군단 스카이넷의 전쟁을 그린다. 인류 저항군의 리더 존 코너가 존재하는 미래와 그가 태어나기 이전인 과거를 넘나들며 화려한 볼거리와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전작에 이어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터미네이터로 출연한다. CG 기술을 통해 젊은 시절 터미네이터의 명성을 완벽하게 재현할 계획이다. 에밀리아 클라크가 존 코너의 엄마 사라 코너 역을, 제이슨 클락이 존 코너 역을 맡았다. 또 다른 주인공인 카일 리스는 제이 코트니가 연기한다. 이병헌은 '터미네이터2'에 등장했던 액체 금속형 사이보그 T-1000 역으로 출연한다. /정성욱기자

FROZEN FEVER

안나·엘사·올라프 돌아온다

단편 '겨울왕국 열기' 내년 3월 공개

올해 초 천만 관객의 사랑을 받았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인공 안나와 엘사, 올라프가 내년 3월 극장가를 다시 찾는다.

'겨울왕국'의 새 단편 애니메이션인 '겨울왕국 열기'는 내년 3월 개봉 예정인 실사영화 '신데렐라'의 오프닝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겨울왕국 열기'는 '겨울왕국'의 크리스 벅, 제니퍼 리 감독과 작곡가 로버트 로페즈, 크리스틴 앤더슨 로페즈가 다시 뭉친 단편 애니메이션이다. 뱃 잇 고의 열풍을 이을 새로운 노래의 등장을 예고해 기대가 높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겨울왕국 열기'와 함께 공개되는 '신데렐라'는 케네스 브래너 감독의 작품으로 케이트 블란쳇, 릴리 제임스, 리차드 메이든 등이 주연을 맡았다. 디즈니 단편 애니메이션이 실사 영화와 함께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에 개봉한 '겨울왕국'은 국내에서 애니메이션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역대 외화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했다.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에서도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을 수상했다. /정성욱기자

'미생' 변요한 "독립영화 ★ 됐어요"

tvN 드라마 '미생'에서 한석율 역으로 주목 받고 있는 배우 변요한(사진)이 제40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독립스타상을 받았다.

지난 5일 CGV 압구정에서 열린 서울독립영화제 폐막식에서 변요한은 주연 영화 '소셜포비아'(감독 홍석재)로 독립스타상을 수상했다. 남배의 배우 이상희와 공동 수상이다.

'소셜포비아'는 경찰 고시생 지웅과 용민이 자살한 군인에 대한 폭언을 SNS에 남긴 레나를 찾아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변요한은 주인공 지웅 역을 맡아 섬세한 감정 연기를 했다.

변요한은 "독립영화를 오래 찍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웠고 힘들어도 일어나는 법을 배운 것 같다. 초심을 잃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영화제에서 '소셜포비아'는 전 상영 티켓이 오픈과 동시에 매진될 만큼 큰 사랑을 받았다. 변요한은 영화제 기간에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해 팬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소셜포비아'는 내년 3월 개봉 예정이다.

한편 이날 폐막식에서는 김정근 감독의 '그림자들의 섬'이 대상을 받았다. 이란국 감독의 '꿈보다 해몽'은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우수작품상에는 엄태화 감독의 '안녕의 세계', 심사위원상에는 서동일 감독의 '명령불복종 교사'와 정종식 감독의 '나는 좀식이다'가 선정됐다. /정성욱기자

날씨

12/8 月 일출 07:34 일몰 17:1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06.co.kr

기온이 낮아지면 저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이 억제돼 각종 호흡기 감염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지수	
감기가능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www.paik.ac.kr)

라벨에 나타난 와인名의 의미

조민호의 와인스토리

병에 부착된 라벨의 와인 이름에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패턴이 있다. 그 패턴만 알고 있어도 와인을 살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첫째는 와이너리 또는 포도밭의 이름이 와인의 상품명이 된 케이스다. 프랑스 보르도와 부르고뉴 지역이 대표적인 예다. 보르도는 와이너리가 샤토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거의 대부분이 샤토의 명칭을 와인 상품명으로 사용한다. 부르고뉴 역시 포도원 이름을 와인명에 붙인다. 미국 나파밸리의 로버트 몬다비나 오퍼스 원과 같이 국제자본이 설립한 대규모 와이너리도 같은 사례다.

산지명이 그대로 와인의 이름이 된 경우도 많다. 이탈리아가 대표적이다.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끼안띠 등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유명한 와인들이 그러하다. 품종과 지역을 같이 쓰기도 한다.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몬탈치노 지역에서 브루넬로 포도로 만든 와인이라는 뜻이다. 프랑스의 경우 샴파뉴(영어표기로는 샴페인)나 샤르도네의 메카 샤블리, 보졸레 등이 지역명을 사용한다.

포도 품종이 그대로 와인 브랜드가 되기도 한다. 미국, 호주 등 신세계 와인에서 많이 나타나며 리슬링,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피노 누아 등 전세계로 퍼져 널리 재배되는 국제품종이 와인명으로 쓰인다.

칠레는 이름의 유래가 다양하다. 까르메네르 등 칠레의 대표품종을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만 상당수 와인 메이커들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개발해 사용한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나 이벤트를 상품명으로 한 케이스가 많다. 유명 와인 메이커 산타 리타의 '120'이라는 와인 이름은 스페인에 대항해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오히긴스 장군이 한때 전쟁에 패해 120명의 군인과 함께 이 와이너리에 몸을 숨겼던 데서 비롯됐다. 콘차이 토로의 '카시제로 델 디아블로(Casillero del Diablo)'는 '악마의 셀러(와인 저장소)'라는 의미다. 인부들이 몰래 와인을 꺼내 마신 뒤에 저장고의 와인이 줄어들자 시장이 지하실에 숨어 귀신 소리를 내어 인부를 쫓아냈다는 데서 유래했다.

fmcho@metroseoul.co.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8
	3			9	8			6
					2	1		9
				3				
5	2	6		1		7	4	3
				7				
8		5	9					
7			6	5			3	
6						5		

		3		7				9
	4			6			8	
	9		4		2			
			3			1		8
		2		4		9		
3		4			7			
			8		6		5	
	2			5			9	
5				1		3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연사 스도쿠 프리미어』
(제티 고든 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밤·낮 두번 경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끈기 있는 성격, 목공 기술 배우도록

Q 우건우(가명) 남자 76년 10월 19일 양력 아침 8시 10분

아침에는 은행 경비 일을 하고 있으며 밤에는 대기업에서 야간 경비 일을 하여 온게 끝나면 바로 출근하는 형식이죠. 배우자는 농투각막이라는 안과질환이 걸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에는 나쁜 관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이들 15살 남아, 7살 여아)이 클 때 까지는 물론 정년까지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지요. 잠은 하루에 3~4 시간씩 자지만 적응이 돼서 남들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혹 제주도나 강원도 또는 경북 쪽으로 이사를 가도 될까요? 연고는 없습니다. 제 사주와 자식운 등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A 사주팔자 상 운세가 늘 좋은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사주 상담을 하는 것도 단 좋은 것,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듣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신금일간(辛金日干) 태어난 날이 음력 8월생이라 사주자체가 신강(身强)한데 확충히 잘 짜인 철근 과 같은 모습으로 신용이 있고 근면하여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해 나가는 근기가 있으며 측백이 분류하여 무엇을 하던 책임감 있게 일합니다.

적관(正官)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작업운이 30세가 되어도 직장에 일손을 놓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데 명함이 목공 기술을 배워두십시오. 2017년 지나서 우먼히 직업이 조금은 바뀔 수도 있는 운으로 가여 상당히 발전 됩니다. 부부 궁에 극격(剋格)과 현침(懸針)살이 겹쳐있어 배우자 자리에 근심이나 수술수가 있습니다. 특히 2015년 6월 이후부터 부인의 안과 질환이 심해지기도 할 것이니 운명이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2017년까지는 재물운이 약하니 그 이후 운세가 바뀌니 행후 다가올 좋은 일에 대해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나 고민도 적지 않겠으나 최선을 다할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발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적성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적성이 상호 결합하여 직업에 알맞은 적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동일한 적성유형에 관련된 직업이라도 각각 요구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직업과 하나의 적성이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발견된 나의 적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만 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2월 8일 (음 10월 17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자기 일은 지키만 보지. 60년생 뜻밖의 애로가 생긴다. 72년생 살아도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하라. 84년생 선심은 적당히 써야 약이 된다.

소 49년생 가족에 환영받을 일 생긴다. 61년생 징토 전망길에 조심할 것. 73년생 충동구매 고기값은 애물단지 된다. 85년생 소나기는 잘단 피하는 게 상책~

호랑이 50년생 앞보단 끝을 높여라. 62년생 지갑안은 안뒤서 혼쭐이 난다. 74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86년생 공든 일은 세시가 된다.

토끼 51년생 위기가 기회가 된다. 63년생 이상과 현실은 다름 잘 명심할 것. 75년생 측근은 잘 도움이 되지 않는다. 87년생 단단한 마음은 잘 풀린다.

용 52년생 나이 생각하며 움직일 것. 64년생 추진 중인 일은 금물상 단다. 76년생 팔삭은 곽관 진동 예상~ 88년생 면단이 마음을 읽어 세상 다 얻은 격이다.

뱀 53년생 배우자와 외험이 즐겁다. 65년생 민감한 일에 애매한 태도 보이지 말라. 77년생 소동이 문제는 백일이 된다. 89년생 상사의 미울해진 언행에 부글부글~

말 42년생 세 일은 기대된 우려만~ 54년생 지나기 희소식 전한다. 66년생 큰일은 방향부터 잡고 시작할 것. 78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양 43년생 콧노래 부를 경사 생긴다. 55년생 불필요한 오해 사지 않도록~ 67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니 79년생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한번 싸워보라.

원숭이 44년생 오너는 측근 진진해야 할 것. 56년생 문서일은 연기하는 게 이롭다. 68년생 배우자의 협력 곰을 이뤄 보자. 80년생 기회 앞에 망설이면 손해다.

닭 45년생 외길 하면 일이 즐겁다. 57년생 자손이 찾아와 즐겁구나. 69년생 뛰는사람 위에 나는 사람도 있다. 81년생 되지 않을 일은 과백 포기할 것.

개 46년생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58년생 배우자 태도 변화가 의심스럽다. 70년생 심대 계획이 물러한지 잘도록~ 82년생 일이 잘 풀려 기세등등하다.

돼지 47년생 반가운 벗이 찾아온다. 59년생 기회가 왔을 때 존재감 보여주라. 71년생 아이디어가 뛰면 속실은 채진다. 83년생 휴가를 기회로 활용해 보자.

여자골프, 일본 선수들에 한수 지도

2014 한일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에서 한국이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여자프로골프 대표 선수들은 7일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 컨트리클럽(파72·6495야드)에서 열린 대회 둘째 날 12개조 싱글 스트로크 플레이로 펼쳐진 경기에서 승점 16점을 따내며 8점에 그친 일본을 이겼다.

한국은 전날 국가별로 2인1조로 치러진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4승1무1패를 기록해 승점 9-3으로 앞선 상황에서 대회 이틀째를 맞았다. 1·2라운드 합계 25-11로 승리를 가져갔다.

1조 선두주자로는 김효주(19·롯데·사진)가 나섰다. 김효주는 1언더파 71타로 일본의 베테랑 오야마 시호를 이겨 승점 2점을 추가했다. 17번홀까지 1타 차로 뒤졌으나 18번홀에서 오야마 시호가 보기를 적는 동안 버디를 잡아 역전승했다.

2조에서는 이정민(22·비씨카드)이 모리타 리카코와 나란히 1오버파 73타로 무승부를 기록해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다. 이어진 3조에서도 이민영(22·한화)과 와타나베 아야카가 5오버파 77타 동타를 적어내 승부를 가리지 못하며 한국과 일본에 승점 1점씩을 안겼다.

이후 한국은 4~6조의 이미림(24·우리투자증권), 허윤경(24·볼빅), 백규정(19·CJ오쇼핑)이 나란히 류 리츠코, 사카이 미키, 스즈키 아이를 누르고 승점 2점씩 총 6점을 추가했다. 6조까지의 경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승점은 18-5가 됐다. 남은 6개 경기에서 일본이 모두 이겨 승점 12점을 올려도 한국의 승점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이 돼 한국의 승리가 확정됐다.

한국은 7조의 전인지(20·하이트진로)가 오오에 가오리에 패한 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시즌 상금 랭킹 3위인 이보미(26)가 8조 경기에서 요시다 유미코에게 승리를 거두며 자존심을 지켰다. 하지만 이어진 9~10조 경기는 연패였다. 최나연(27·SK텔레콤)은 아나이 라라에게 1타 차로, 세계 랭킹 1위인 박인비(26·KB금융그룹)도 하나 에리나에게 5타 차로 패해 총 4점을 내줬다.

그러나 한일국가대항전 최다 출전(6회) 선수인 신지애(26)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언더파 70타를 치며 우에다 모모코를 4타차로 꺾었다. 마지막 12조 경기는 세계 랭킹 7위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유소연은 이 대회 최저타수인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며 일본 참가 선수 중 올 시즌 JLPGA 투어 상금액이 가장 많은 나리타 미스즈를 10타 차로 따돌렸다.

한국은 한일 국가대항전이 열린 2005년과 2012년에 이어 올해까지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일본에 앞서는 면모를 보였다. 총 상금 6150만 엔이 걸린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1인당 300만 엔씩 총 3900만 엔의 상금을 가져갔다.

한편 1조에서 짜릿한 역전극을 만들어낸 김효주는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MVP)로 선정됐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호날두 '세계 최고 골잡이' 입증

프리메라리가 해트트릭 신기록···개인통산 200골 기록도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9)가 프리메라리가 해트트릭 신기록으로 세계 최고 골잡이의 위엄을 과시했다.

7일(한국시간) 마드리드의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셀타 비고와의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14라운드 홈경기에서 호날두는 세 골을 터뜨렸다. 프리메라리가에서 개인통산 23번째 해트트릭이다.

이로써 호날두는 알프레도 디스테파노(전 레알 마드리드), 텔모 사라(전 아틀레틱 빌바오·이상 22회), 리오넬 메시(27·바르셀로나)를 제치고 이 부문 최고가 됐다.

이날 호날두의 세 번째 골은 프리메라리가 개인통산 200호 골이기도 하다. 그는 178경기만에 200골을 터뜨려 프리메라리가 역사상 가장 빨리 200골 고지에 오른 골잡이로 기록됐다.

7일(한국시간)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왼쪽)가 셀타 비고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같은 팀 동료 가레스 베일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AP뉴시스

호날두는 2009-2010시즌부터 5시즌째 스페인 1부 리그인 프리메라리가에서 활약 중이다. 그는 올 시즌 13경기에서 23골(6어시스트)을 터뜨렸다. 경기평균 1.77골을 기록하며 확고한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호날두는 전반 36분 페널티킥을 득점으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뽑았다. 이어 후반 20분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오른발로 추가골을 넣었고 후반 36분 페널티지역에서 왼발로 쐐기골을 터뜨렸다. 해트트릭을 완성한 뒤 후반 40분 하비에르 에르난데스와 교체돼 벤치로 들어갔다.

레알 마드리드는 셀타 비고를 3-0으로 꺾었다. 올 시즌 12승2패로 승점 36을 쌓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32점), 바르셀로나(31점)를 제치고 프리메라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장병호기자

'빙속 여제' 이상화 금빛 질주

빙상월드컵 500m 연속 金···1000m 5위 '선전'

'빙속 여제' 이상화(서울시청·사진)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500m 레이스에서 연속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1000m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6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14-2015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3차 대회 여자 500m 디비전A(1부리그) 1차 레이스에서 이상화는 37초87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2위 헤더 리처드슨(미국·38초21)을 큰 격차로 따돌린 성적이다.

이로써 이상화는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2차 대회 2차 레이스에 이어 500m 2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다. 이상화의 500m 레이스 연속 메달 행진은 2011-2012시즌 4차 대회를 시작으로 26경기째 계속되고 있다.

이어 7일에 열린 여자 1000m 디비전A에서 이상화는 1분16초40의 기록으로 5위에 오르는 선전을 보였다. 그는 지난달 일본 오비히로에서 열린 1차 대회에서도 이 종목 5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도 같은 순위를 기록해 시즌 랭킹 7위를 달렸다. 브리타니 보위(미국)가 1분14초81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한편 올 시즌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꾼 전 쇼트트랙 선수 박승희(화성시청)도 이날 여자 1000m에 출전했다. 박승희는 1분16초93의 기록으로 20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

/장병호기자

윤석영 풀타임 퀸스파크 강등권 탈출

윤석영(24·사진)이 소속돼 있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퀸스파크 레인저스가 번리를 제압하고 강등권 탈출 기회를 늘렸다.

6일(현지시간) 퀸스파크 레인저스는 영국 런던의 로프터스 로드에서 열린 2014-201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번리와의 홈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윤석영은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으로 활약하며 팀의 승리에 힘을 보탰다.

퀸스파크는 이날 경기의 승리로 4승2무9패를 기록하며 승점 14가 됐다. 19위에서 17위로 두 계단 뛰어올라 강등권인 18위 위로 도약했다.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잔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퀸스파크 레인저스는 후반 6분에 리로이 페르, 후반 29분에 찰리 오스틴이 한골씩 넣어 번리를 따돌렸다. /장병호기자

프로배구 전적 (7일)

대한항공	3	1	삼성화재
흥국생명	3	0	KGC인삼공사

프로농구 전적 (7일)

KCC	13	31	22	27	93
삼성	22	19	13	23	77
SK	22	18	20	18	74
오리온스	10	23	18	13	64
모비스	18	20	27	22	87
동부	13	18	18	31	78
우리은행	22	19	27	21	89
하나외환	20	11	18	29	78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